

성동구 도시 프로파일

[도시 프로파일 목차]

I. 인구특성지표	16
1. 현재 인구 현황	16
2. 인구 구조 및 특성	18
II. 건강지표	26
1. 생정 통계	26
2. 건강 인식	29
3. 건강 검진	31
4. 유병률	35
5. 모자 보건 조사	36
III. 의료 서비스 지표	38
1. 의료서비스 현황	38
2. 의료서비스 인력현황	40
3. 사회복지 기관 현황	41
4. 예방접종	43
5. 보건소 서비스	45
IV. 생활양식지표	47
1. 흡연	47
2. 음주	49
3. 육체적 활동	50
4. 사고 현황	54
V. 환경 지표	57
1. 기온 및 강수량	57
2. 대기 오염	59
3. 급수 현황	60
4. 쓰레기 처리	62
5. 녹지 공간	64
VI. 사회경제지표	65
1. 경제활동	65
2. 교통 및 정보통신	72
3. 주택	73

4. 교육 74

[표 차례]

[표 1] 집단 특성별 인구 수 17
[표 2] 조출생률 26
[표 3] 저 체중 출생아 비율 26
[표 4] 조사망률 27
[표 5] 남녀별 사망의 선도원인 28
[표 6] 평균기대수명 28
[표 7] 성동구 15세 이상 남녀의 평생 혈압 측정 경험률 32
[표 8] 성동구 15-44세 기혼녀의 최근 2년간 최종 출생아 분만 형태 36
[표 9] 의료기관의 수 39
[표 10] 보건의료기관별 병상 수 39
[표 11] 의료취약계층 인구수 41
[표 12] 사회복지기관별 분포 42
[표 13] 보육시설 현황 42
[표 14] 보건소 이용 현황 45
[표 15]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 45
[표 16] 성동구 15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 48
[표 17] 대기환경오염수준 현황 59
[표 18] 저소득층 현황 67
[표 19] 경제활동 가능인구 67
[표 20] 성동구 외국인 노동자 비율 71
[표 21] 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 72
[표 22] 교육기관 현황 74

[그림 차례]

[그림 1] 5세 간격 인구 분포	16
[그림 2] 연령별 인구 분포	17
[그림 3] 지난 15년간 전체 인구변화	18
[그림 4] 향후 15년간 인구변화 추정	19
[그림 5] 지난 15년간 전체 세대수 변화	20
[그림 6] 지난 10년간 평균 가구원 수 변화	21
[그림 7] 향후 15년간 평균 가구원 수 추이	22
[그림 8]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추이	23
[그림 9]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이	24
[그림 10] 교육수준 분포	25
[그림 11] 결혼상태 분포	25
[그림 12] 사망의 선도원인	27
[그림 13] 성동구의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	29
[그림 14] 성동구의 아침 식습관 실태조사	30
[그림 15] 성동구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수진율	31
[그림 16] 성동구 15세 이상 여자의 지난 2년간 자궁암 검진여부	33
[그림 17] 성동구 15세 이상 남녀의 지난 2년간 위암 검진 여부	34
[그림 18] 성동구 연간 본인인지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	35
[그림 19] 성동구 15-44세 기혼녀의 피임 실천율	36
[그림 20] 성동구 15-44세 기혼녀의 피임실천방법	37
[그림 21] 성동구 의료보험별 가입자현황	38
[그림 22] 인구 만 명당 의료 인력의 수	40
[그림 23] 예방접종 현황	43
[그림 24] 연도별 예방접종률 추이	44
[그림 25] 보건소에 요구하는 프로그램 종류	46
[그림 26]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47
[그림 27] 15세 이상 인구의 음주율	49
[그림 28] 성동구 비만도	50
[그림 29] 성동구 운동 실천율	51
[그림 30] 성동구 장기 활동 제한자의 비율	52
[그림 31] 성동구 장기 활동 제한자의 주요 원인	53
[그림 32] 성동구 전체 사고 발생률	54
[그림 33] 성동구 교통사고 발생률	55
[그림 34] 성동구 안전벨트 착용실태	56
[그림 35] 월별 평균기온	57
[그림 36] 강수량	58
[그림 37] 연간 급수 사용량	60
[그림 38] 음용수 종류별 공급율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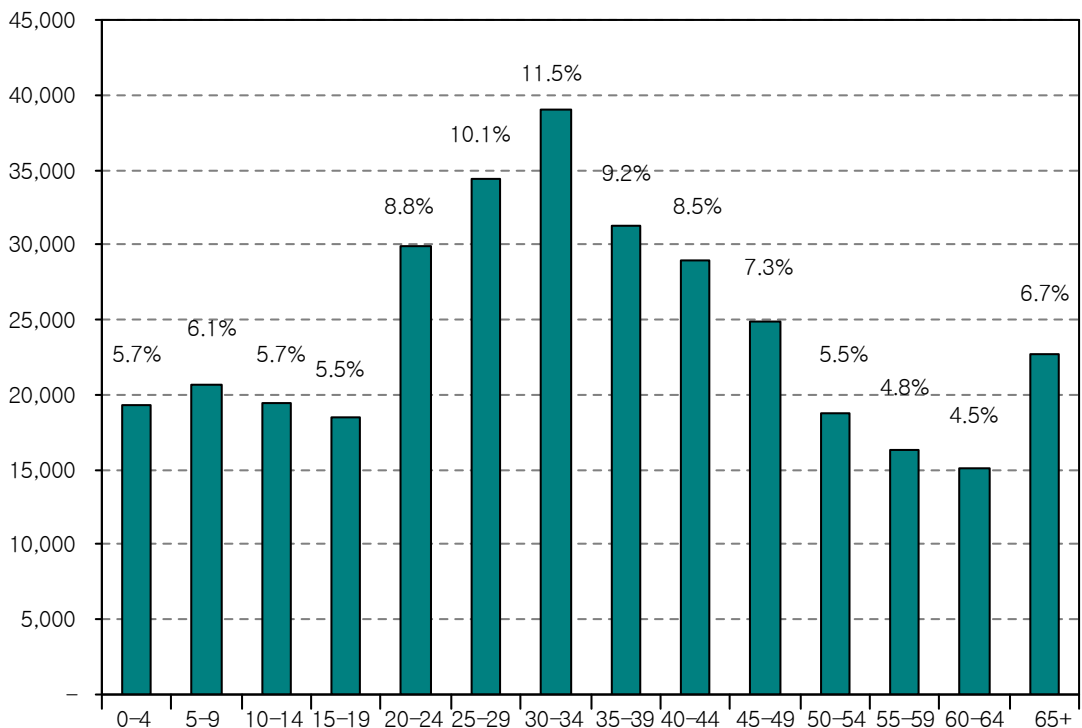
[그림 39] 일일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	62
[그림 40] 연간 쓰레기 수거 처리	63
[그림 41] 토지 이용률	64
[그림 42] 경제활동(직업) 현황	65
[그림 43] 성동구 가구별 월 소득 현황	66
[그림 44] 실업률	68
[그림 45] 산업체별 종사자 수	69
[그림 46] 종사자 규모별 산업체 수	70
[그림 47]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	71
[그림 48] 등록된 자동차 대수	72
[그림 49] 주택종류별 보급률	73
[그림 50] 주택의 점유형태	73
[그림 51] 학생 수	74
[그림 52] 남녀 학생 비율	75

I. 인구특성지표

1. 현재 인구 현황

성동구의 총 인구는 2004년 12월31일 기준, 343,992명이며 이것은 서울시 인구 10,276,968명의 3.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인구밀도는 1km²당 20,423명으로 서울시 인구밀도 1km²당 16,978명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성별 인구분포를 보면, 남자가 전체 성동구 인구의 50.4%, 여자가 49.6%를 차지함으로써 남녀간 인구차이는 거의 없다.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30-34세가 전체의 11.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1] 5세 간격 인구 분포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의 집단 특성별 인구분포를 보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20-64세 인구가 전체의 69.4%(남자 70.2%, 여자 68.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유아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각각 전체의 22.6%와 6.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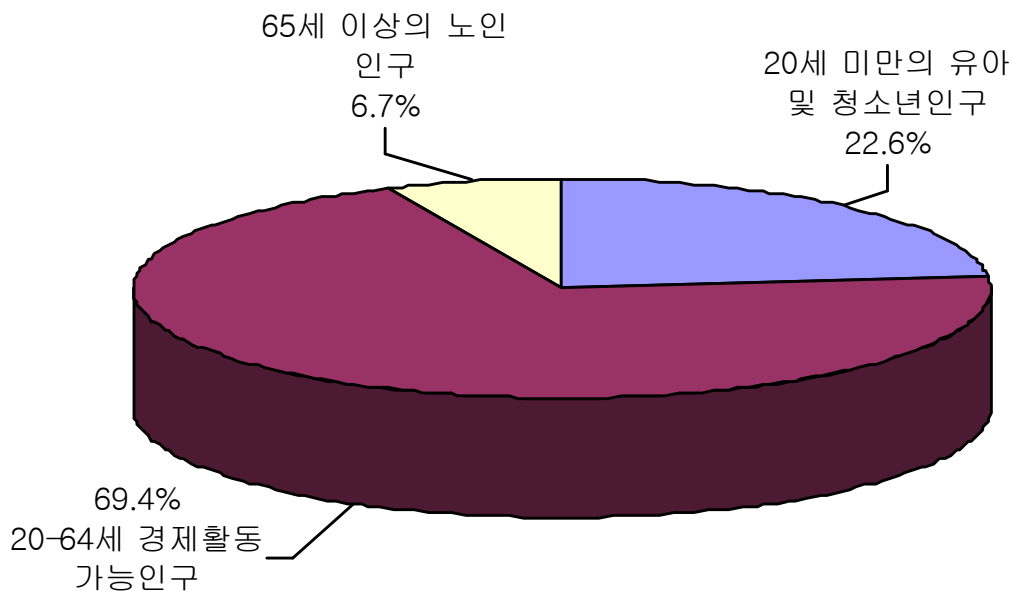
[표 1] 집단 특성별 인구 수

연령	집단	전체	남자	여자
20세미만	유아 및 청소년	77,848(22.6%)	39,946(23.1%)	37,902(22.2%)
20-64세	경제활동가능인구수	238,797(69.4%)	121,623(70.2%)	117,174(68.6%)
65세이상	노인	22,723 (6.7%)	9,248 (5.3%)	13,475 (7.9%)

자료출처 :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성동구 보건소. 2003-2006

[표 1]의 성동구의 집단 특성별 인구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령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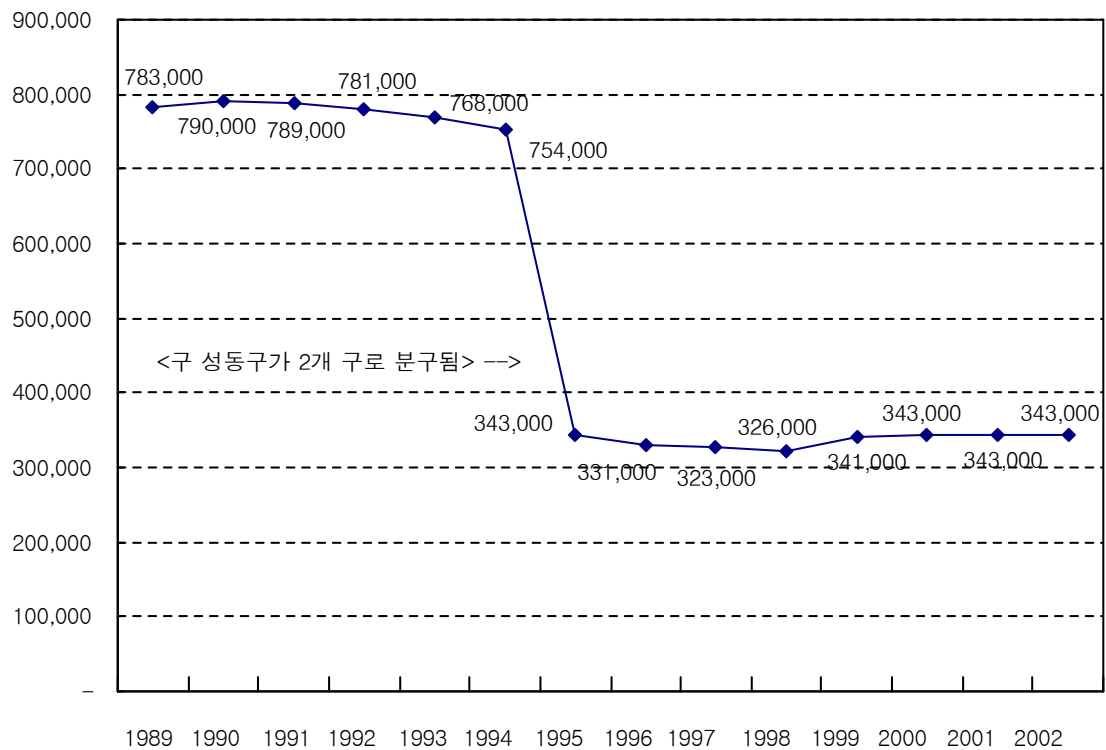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성동구 보건소. 2003-2006

2. 인구 구조 및 특성

성동구의 인구는 195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전국적인 가족계획 실시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1995년 분구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인구인 약 34만 명은 1995년 정해진 것으로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림 3] 지난 15년간 전체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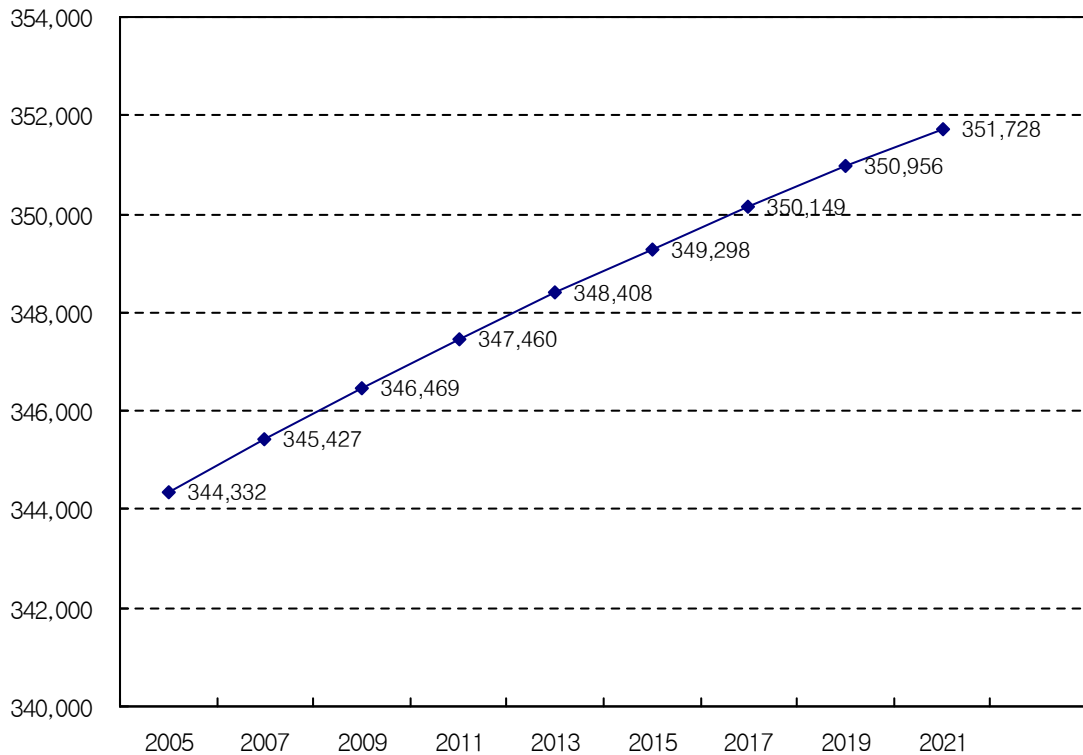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성동구. 2005

성동구 향후 15년간 인구변화 추정은 과거추세에 따른 선형회귀모형과 고펀르츠모형, 로지스틱 모형에 따른 산술평균값으로 예측한 것이다. 2005년 현재 성동구의 인구는 343,992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성동구내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성동구의 목표 인구는 351,728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 향후 15년간 인구변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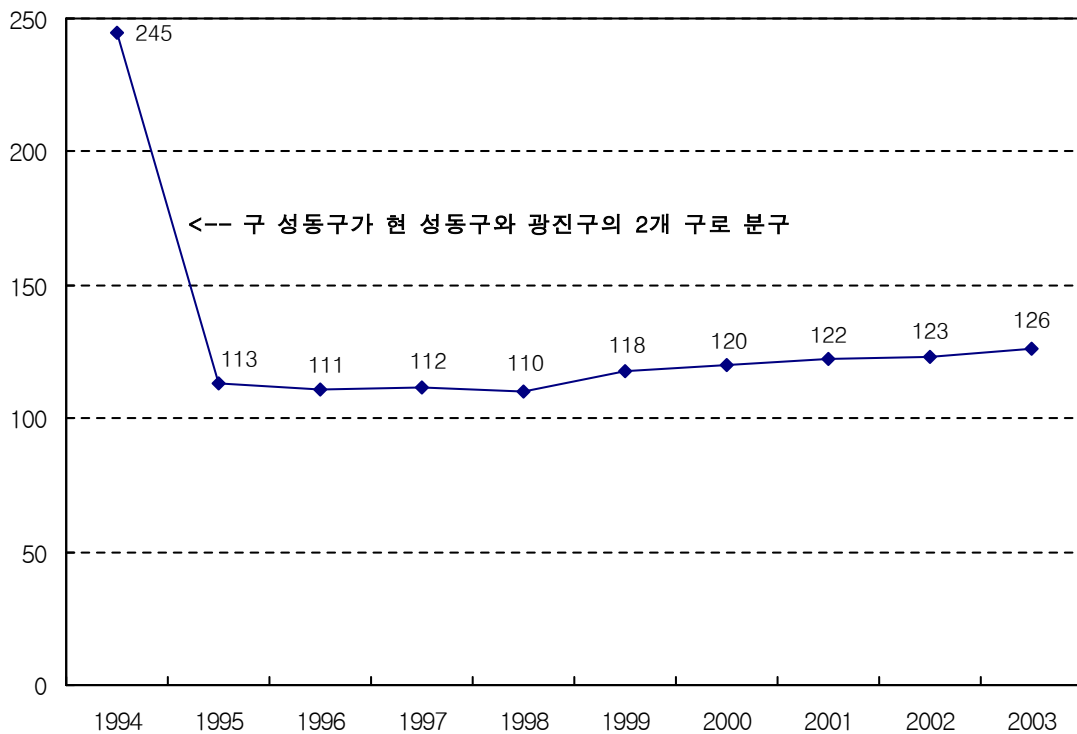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성동구. 2005

성동구의 전체 세대수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28,964 세대이었다. 1995년 분구에 따른 세대수 감소이후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지난 15년간 전체 세대수 변화

(단위 : 천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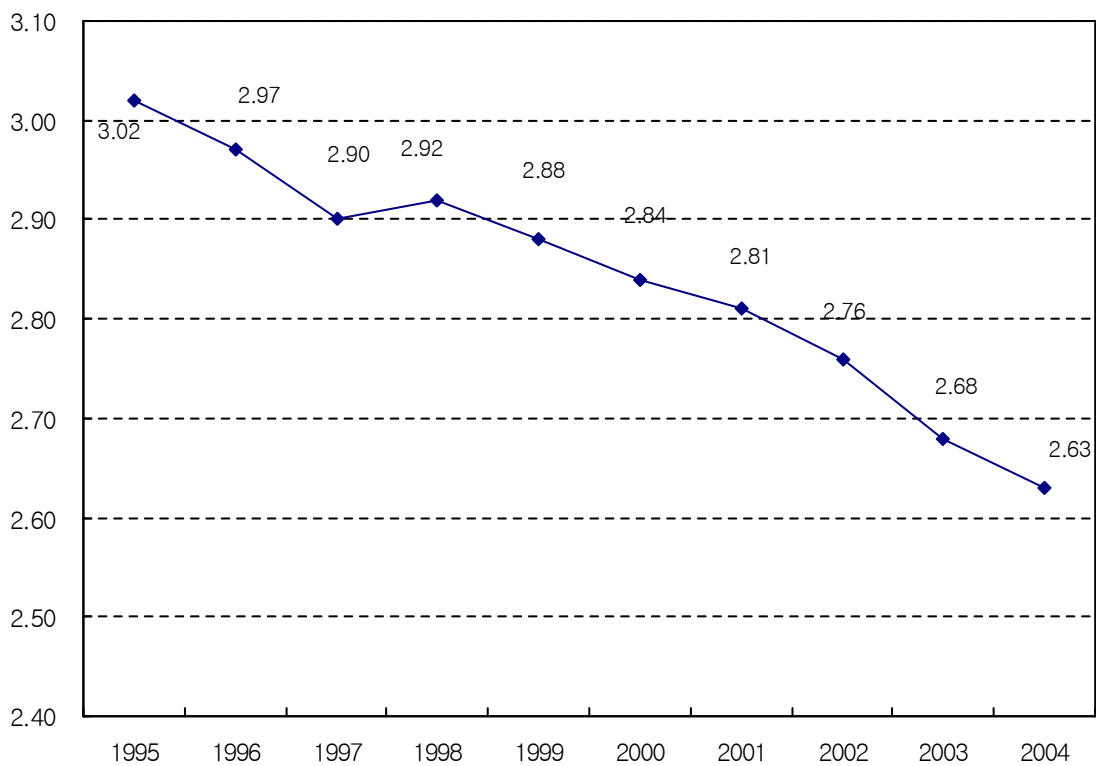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성동구. 2005

전체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평균 가구원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1995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02명이었다가 2004년 2.63명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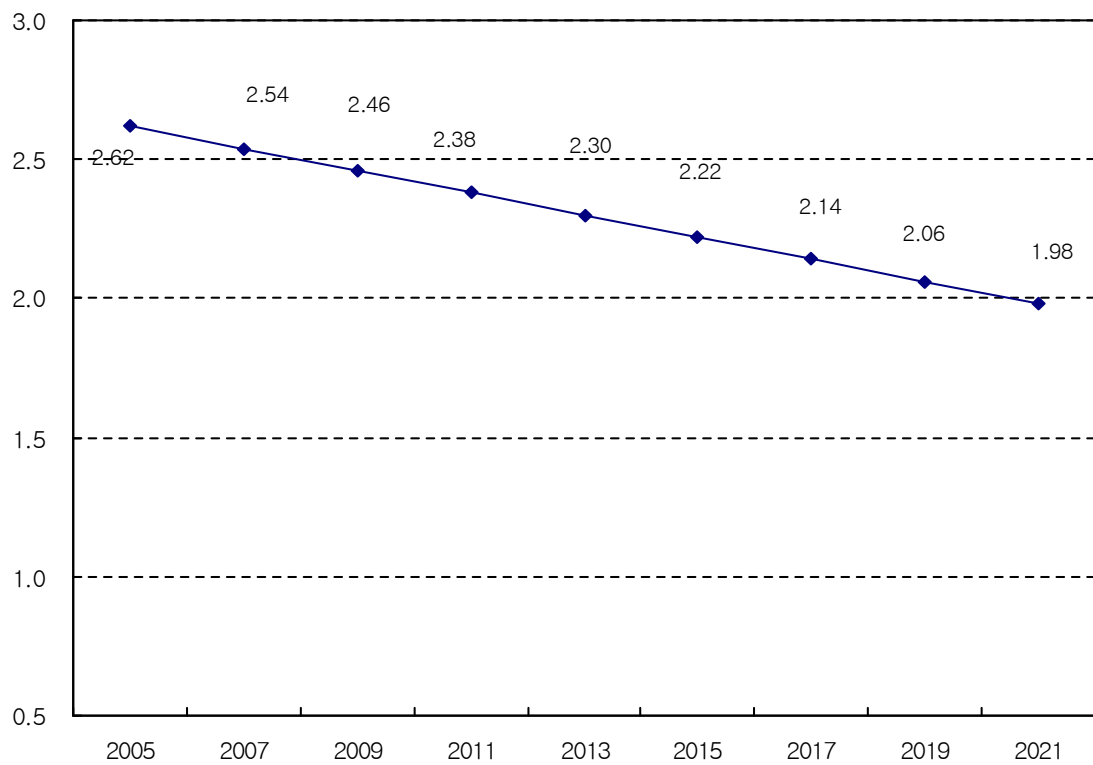
[그림 6] 지난 10년간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자료출처 :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성동구. 2005.4

성동구 향후 15년간 평균 가구원 수를 선형회귀모형에 의해 추정하였다. 2005년 현재 성동구의 세대 당 인구는 2.62명이다. 소규모 가족 위주의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평균 가구원수 감소는 2021년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1.98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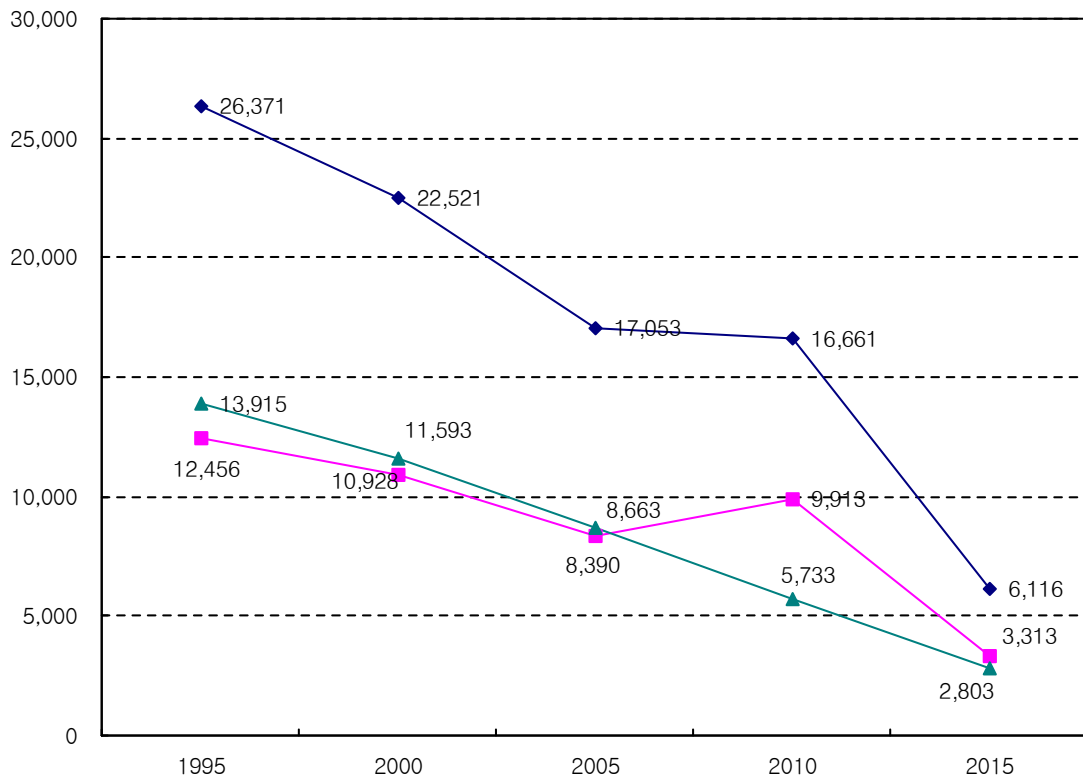
[그림 7] 향후 15년간 평균 가구원 수 추이



자료출처 :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성동구, 2005.4

성동구 5세미만의 영유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5세미만 에서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10년 내에 여자의 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5년 영유아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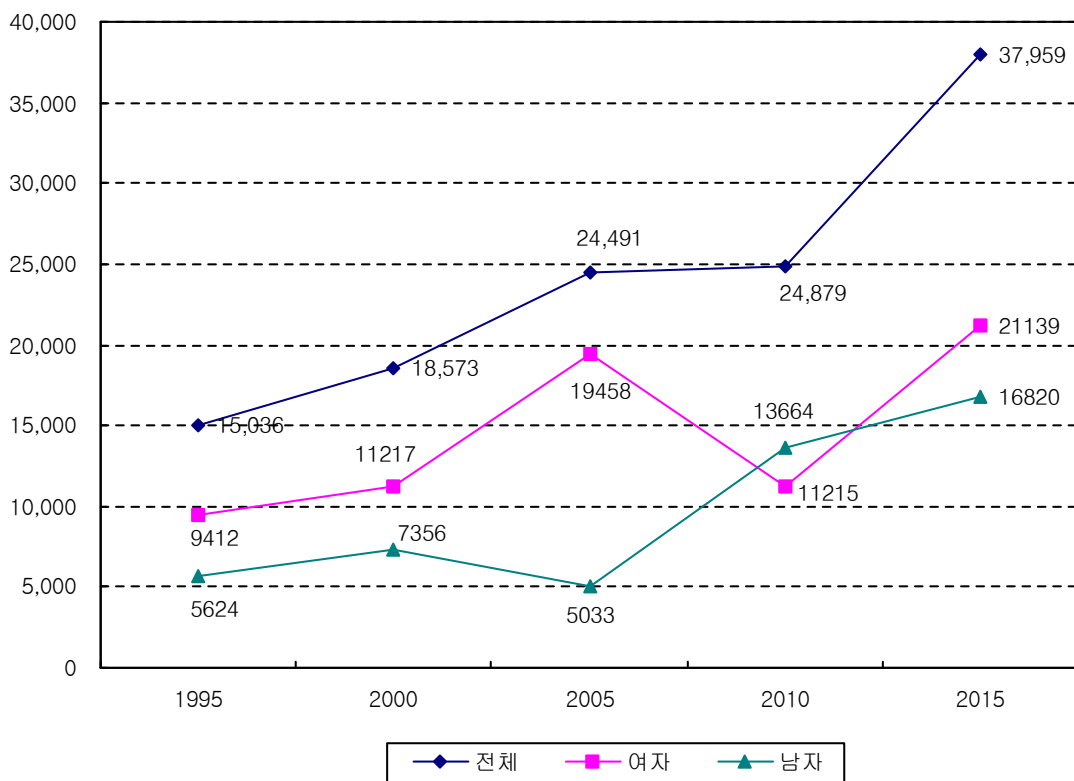
[그림 8]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추이



자료출처 : 성동구 지역현황 보고서. 성동구. 2005

성동구 연령별 전체 인구를 볼 때, 5세미만의 유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성동구 인구의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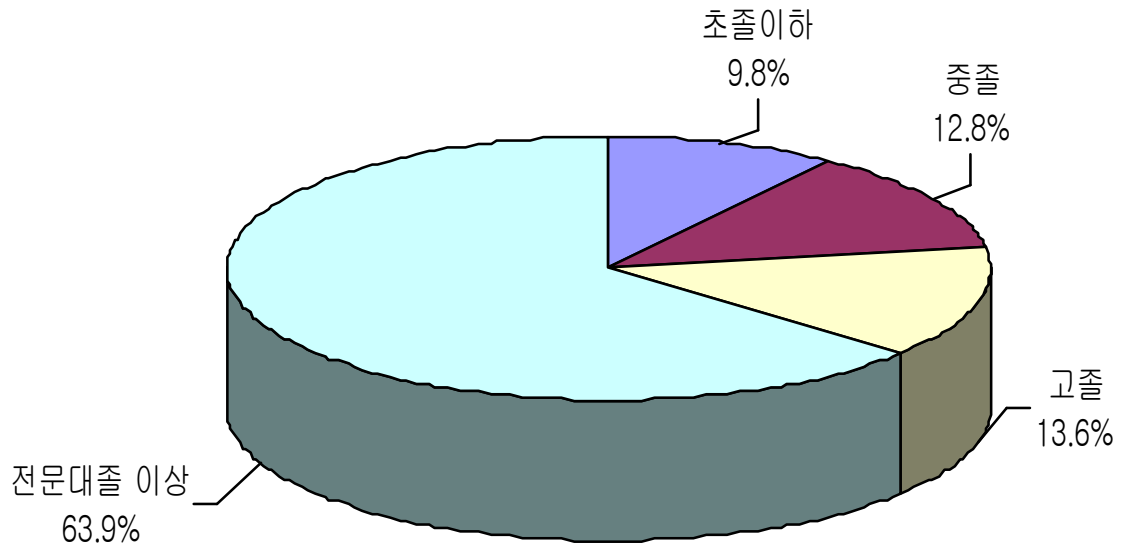
[그림 9]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이



자료출처 : 성동구 지역현황 보고서. 성동구. 2005

성동구 교육 수준의 분포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13.6%,중졸 12.8% 그리고 초졸 이하가 9.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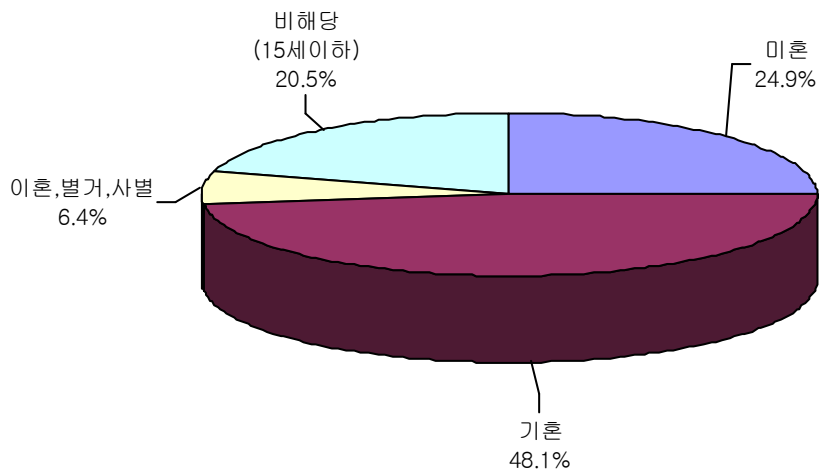
[그림 10] 교육수준 분포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결혼 상태 분포를 보면, 기혼자의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 24.9%, 이혼, 별거, 사별이 6.4% 그리고 비 해당자인 15세 이하 인구가 20.5%였다.

[그림 11] 결혼상태 분포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2003

II. 건강지표

1. 생정 통계

우리나라 전체의 출생률은 1970년대 인구 1,000명당 31.2명에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2년에 인구 1000명당 10.3명 이었다. 성동구의 조출생률은 국가 전체의 수치보다 약간 높아 인구 1,000명당 11명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출생자 수가 여자보다 많았다.

[표 2] 조출생률

	성별	출생자	인구 1,000명당 출생자수
성동구	남자	1,971	11명
	여자	1,847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저 체중 출생아는 2500g이하의 체중으로 태어난 영아를 말한다. 저 체중 출생아의 비율을 보는 것은 이 자료가 영아 사망률과 연관이 있고 모성 흡연, 알코올, 약물 사용 그리고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연결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 체중 출생아는 정상 체중의 출산아보다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또는 같은 장애라도 더 오랜 기간 가지게 되며 혹은 출생 첫 해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성동구의 저 체중 출생아 비율은 전체 신생아 중 3%를 차지했다.

[표 3] 저 체중 출생아 비율

0세 인구(명)	저 체중 출산아(명)	비율
3,956	128	3%

자료출처 :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성동구 보건소. 2003~2006

우리나라 전체의 사망률은 1970년대 인구 1,000명당 8명에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2년에 인구 1000명당 5.1명 이었다. 성동구의 사망률은 국가 전체의 수치보다 더 낮아 인구 1,000명당 4명이었다. 사망률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는, 남자 사망자수가 여자 사망자수 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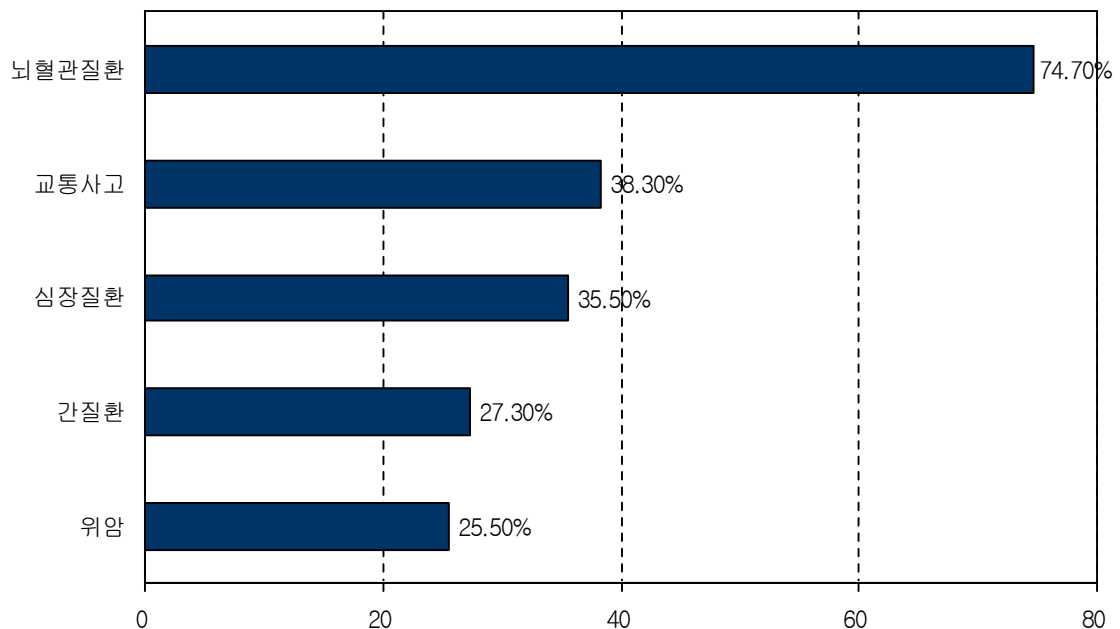
[표 4] 조사사망률

	성별	사망자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
성동구	남자	715	4명
	여자	551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국가 전체의 사망의 선도원인으로 1위는 신생물, 2위 순환기계 질환, 3위 유병 및 외부요인이 차지했다. 성동구의 사망 선도원인을 살펴보면, 1위가 뇌혈관 질환이었고, 2위가 운수사고이었으며, 3위는 심장질환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4위와 5위는 각각 간 질환과 위암이었다.

[그림 12] 사망의 선도원인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사망의 선도원인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1위는 남녀모두 뇌혈관질환으로 사망 원인중 70%이상을 차지했다. 2위는 남자는 운수사고(56.6%)이었던 반면 여자는 심장질환(32.9%)이었다. 전체적으로 사망 선도원인의 순위만 다를 뿐 전체적인 사망 선도 원인 항목은 남녀가 일치했다. 그러나 남자가 간 및 간 내담관암이 32.6%로 5위를 차지했다. 여자는 당뇨병이 17.3%로 5위를 차지했다.

[표 5] 남녀별 사망의 선도원인

순위	남자	여자
1	뇌혈관질환 (71.0%)	뇌혈관질환 (78.4%)
2	운수사고 (56.6%)	심장질환 (32.9%)
3	간 질환 (44.0%)	운수사고 (19.9%)
4	심장질환 (38.4%)	위암 (18.3%)
5	간 및 간 내담관암 (32.6%)	당뇨병 (17.3%)

자료출처 : 성동통계연보. 성동구. 2003

우리나라 전체의 남녀 평균기대 수명은 남자 72.84세, 여자 80.01세 이다. 성동구의 연령별 평균 기대 수명을 조사한 결과, 70대 이상의 평균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10-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80대 이상의 평균 기대 수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녀 모두 30-40대의 비율이 높았다. 30-40대의 남녀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높은 평균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 평균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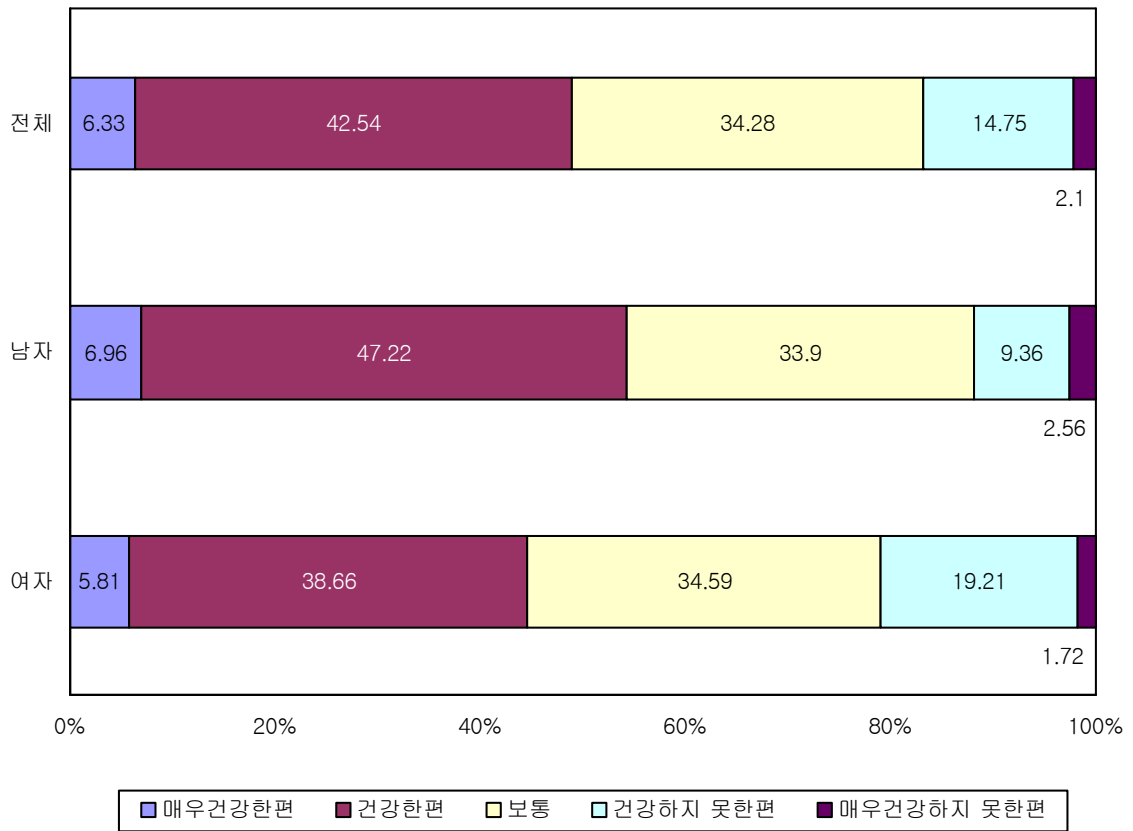
연령별	남 자			여 자		
	10-20대	30-40대	50대이상	10-20대	30-40대	50대이상
70세 이상	21.7%	15.3%	2.5%	26.1%	18.1%	5.7%
80세 이상	13.9%	27.7%	18.9%	8.8%	21.4%	19.9%
Total	35.6%	42.9%	21.5%	34.9%	39.5%	25.6%

자료출처 : 성동구 지역건강보험자료. 성동구 보건소. 2003.

2. 건강인식 현황

성동구의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 조사결과, 성동구민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의 48.67%가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답했으며, 34.2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16.85%만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남자에서는 11.92%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라고 답한 반면 여자는 20.93%가 그렇다고 답한 결과를 보건대, 상대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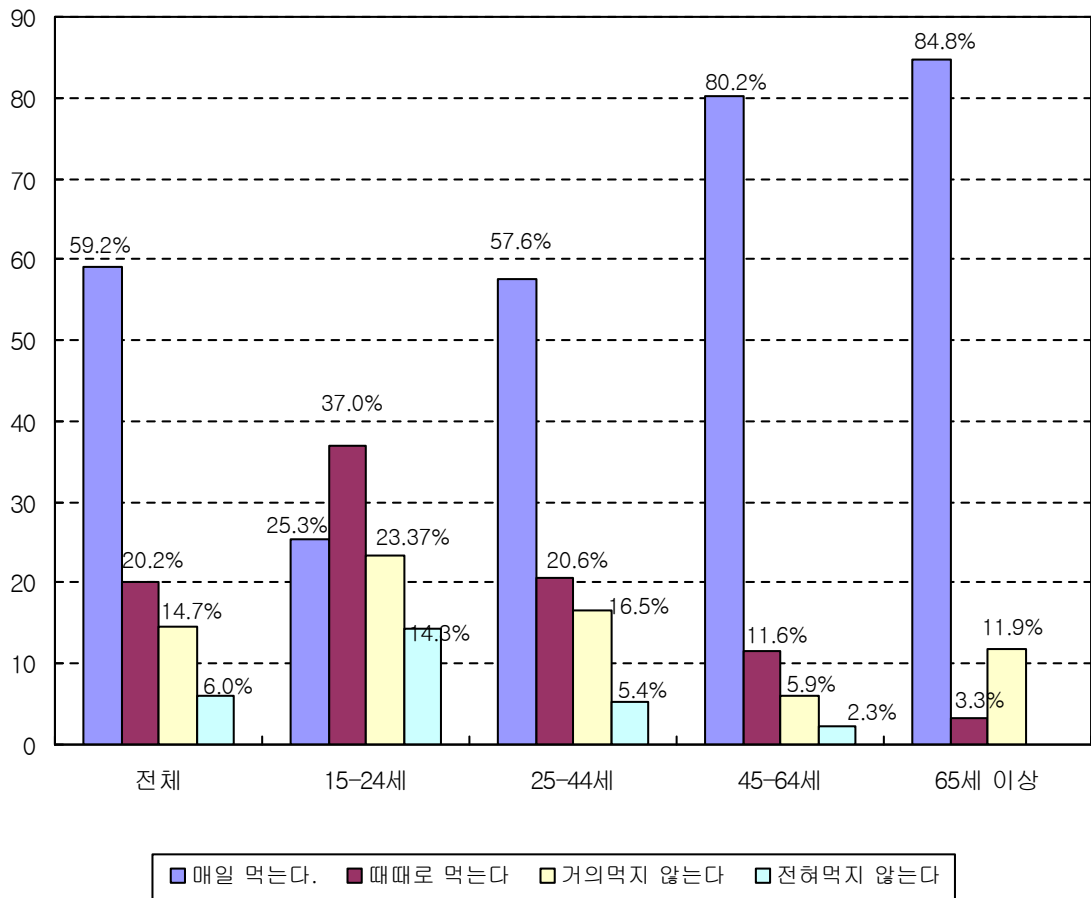
[그림 13] 성동구의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성동구의 아침 식습관 실태 조사결과, 성동구민들의 59.2%가 아침을 매일 먹는다고 답했고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0%이었다. 45-64세와 65세 이상 집단에서 아침을 매일 먹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24세에서 25.5%로 낮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아침을 반드시 먹고 낮을수록 전혀 먹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4] 성동구의 아침 식습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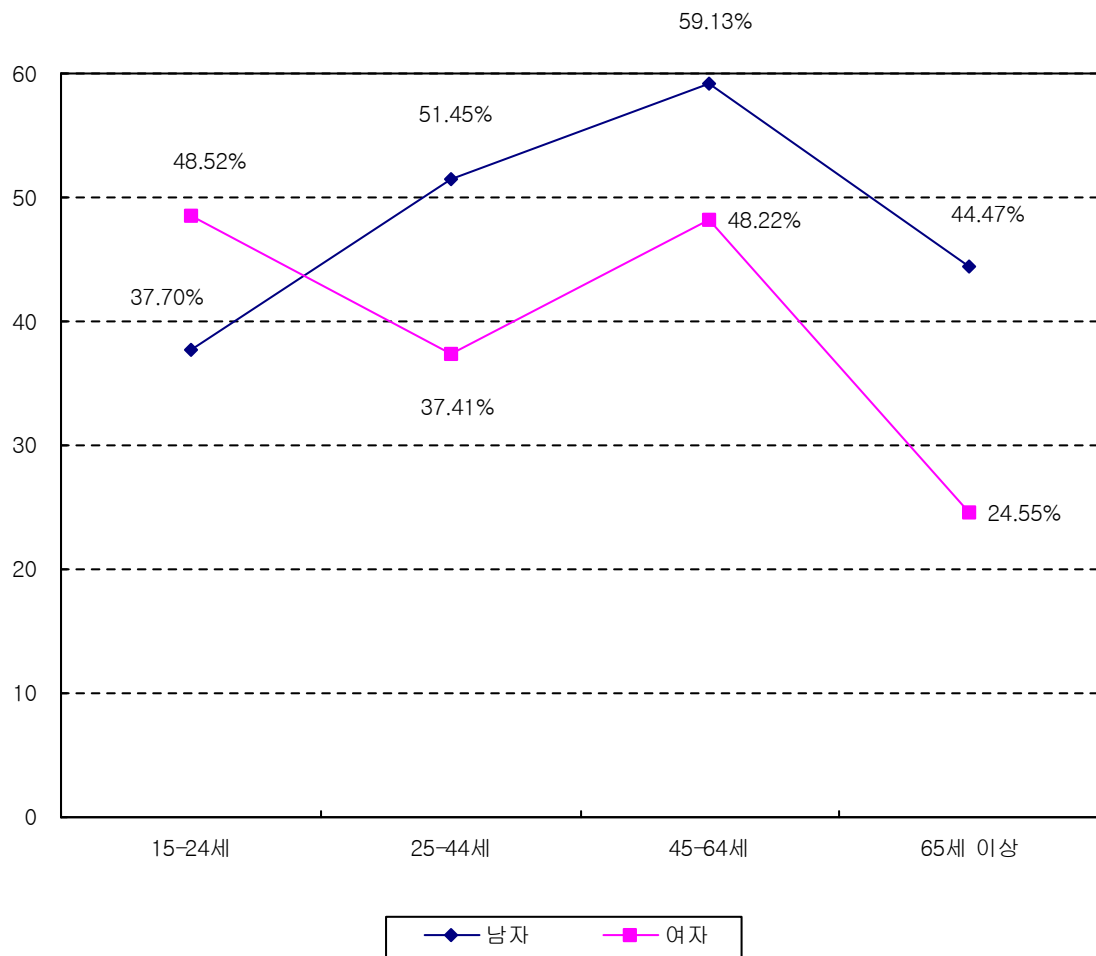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3. 건강 검진

지난 2년간 남녀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연령별 수진율을 조사한 결과, 남자에서는 45-64세에서 59.13%로 가장 높은 수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 비교적 낮은 비율인 44.47%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같은 연령대의 여자의 24.55%에 비해서는 1.8배 높은 수치이다.

[그림 15] 성동구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수진율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성동구민 중 15세 이상 남녀의 평생 혈압 측정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10명중 9명이, 여자는 8.8명이 혈압 측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 결과와도 비슷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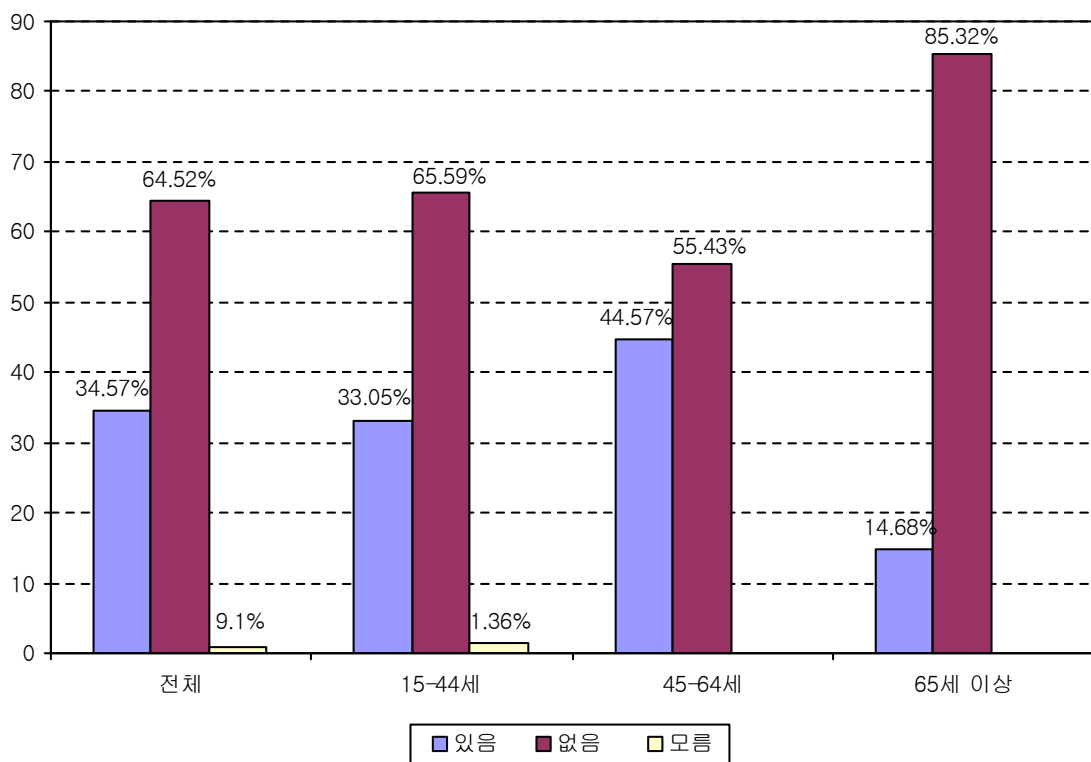
[표 7] 성동구 15세 이상 남녀의 평생 혈압 측정 경험률

	성별	있음(%)	없음(%)
성동구	남자	90.23	9.77
	여자	88.76	11.24
서울시	남자	89.50	10.50
	여자	90.43	9.57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15세 이상 여자의 지난 2년간 자궁암 검진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폐경기를 겪는 45-64세에서의 여성 검진율이 44.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최근 자궁암에 걸리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듯이 15-44세에서 65세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검진율이 나타났다. 반면, 15-44세의 젊은 계층에서는 모른다고 답한 무관심 계층도 1.36% 있었다. 65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검진율은 낮고 미검율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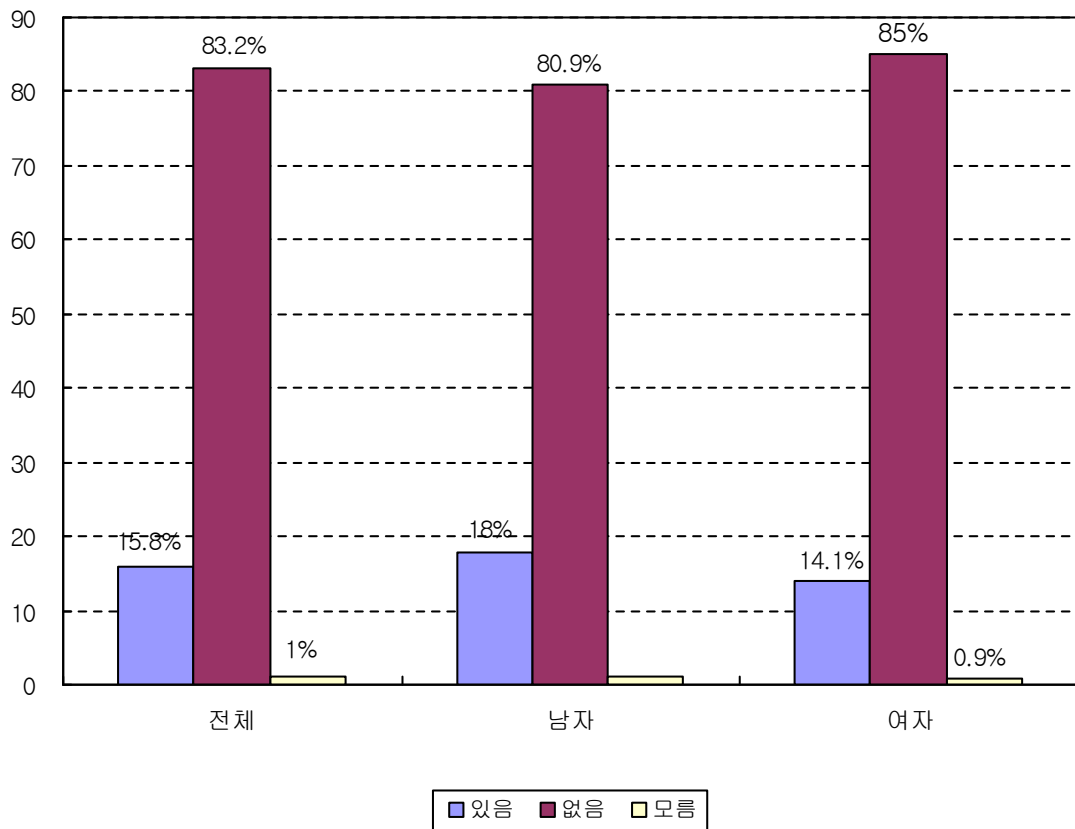
[그림 16] 성동구 15세 이상 여자의 지난 2년간 자궁암 검진여부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15세 이상 남녀의 지난 2년간 위암 검진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위암 검진율이 매우 낮았다. 위암이 여성의 사망 선두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암 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등 최근 위암 검진에 대한 방법들이 편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진 방법에 대한 일반 시민의 거부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성동구 15세 이상 남녀의 지난 2년간 위암 검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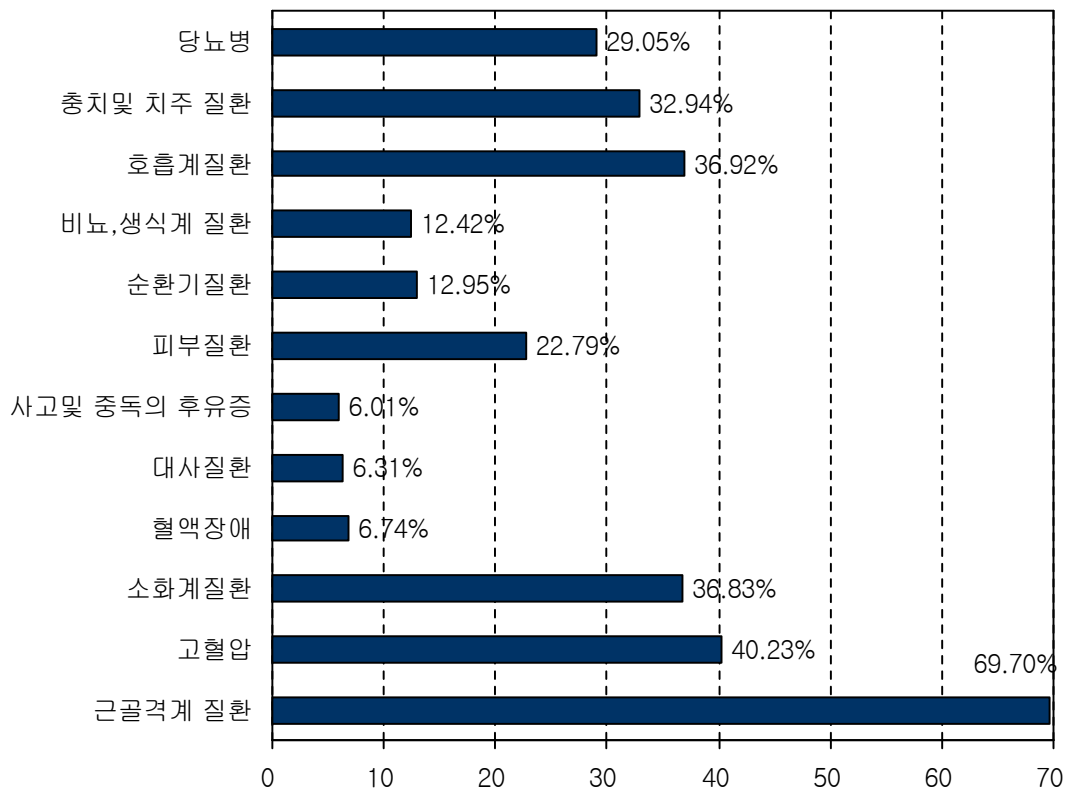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4. 유병률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연간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성동구민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중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은 6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혈압 40.23%, 호흡계질환 36.92%, 소화계질환 36.83%, 총치 및 치주질환 32.94%, 당뇨병 29.0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림 18] 성동구 연간 본인인지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5. 모자 보건 조사

성동구내 15-44세 기혼녀의 유산 등을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최종 출생아 분만 형태를 보면, 자연분만의 비율이 50.86%, 제왕절개의 비율이 49.32%로 신생아 두 명중 한명이 수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결과에서는 자연분만 61.57%, 제왕절개 38.4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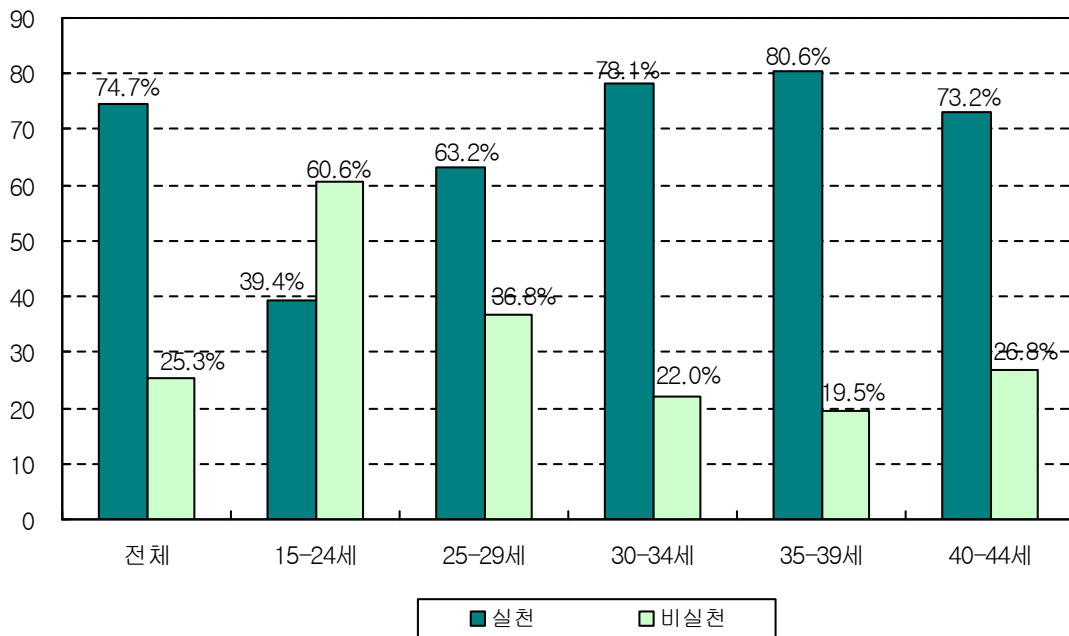
[표 8] 성동구 15-44세 기혼녀의 최근 2년간 최종 출생아 분만 형태

출생아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서울시	61.57(%)	38.43(%)
성동구	50.68(%)	49.32(%)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성동구내 15세 이상 44세 이하 기혼녀의 피임 실천율은 74.69%로 조사되었다.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5-24세에서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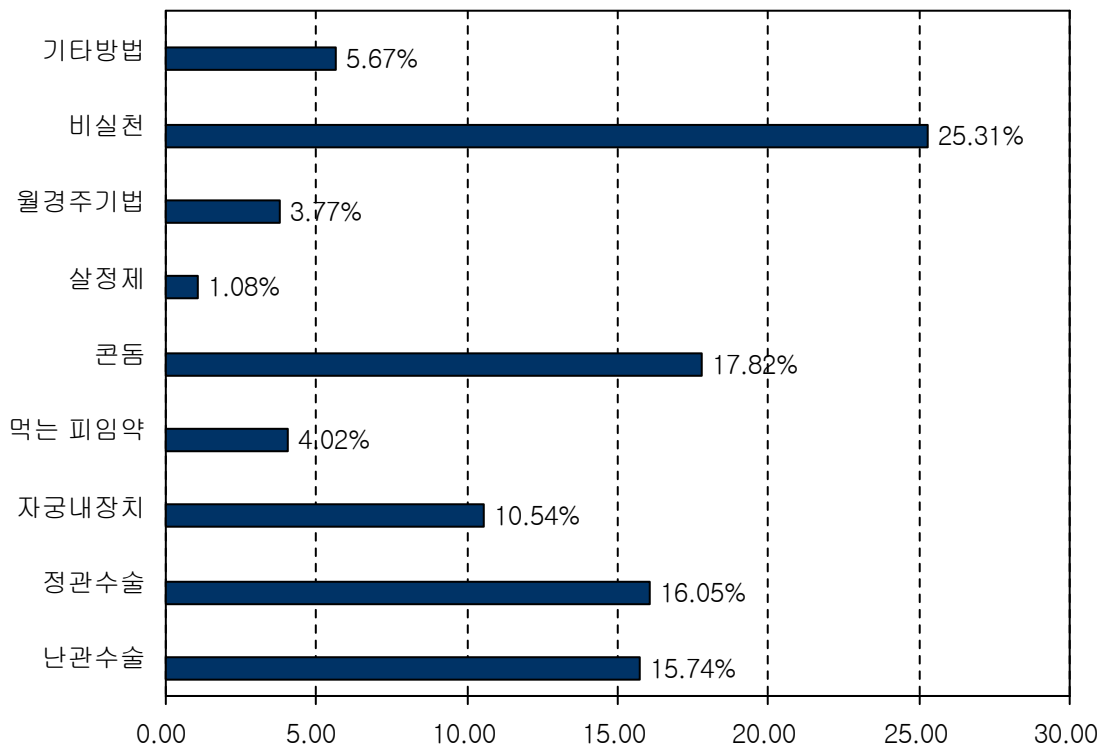
[그림 19] 성동구 15-44세 기혼녀의 피임 실천율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피임 실천 방법 중에서는 콘돔(17.82%), 정관수술(16.05%), 난관수술(15.74%), 자궁 내 장치(10.54%)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임을 하지 않는 비율은 25.31%이었다. 기타 방법으로는 먹는 피임약, 살정제, 월경주기법 등이 있었다.

[그림 20] 성동구 15-44세 기혼녀의 피임실천방법



자료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Ⅲ. 의료 서비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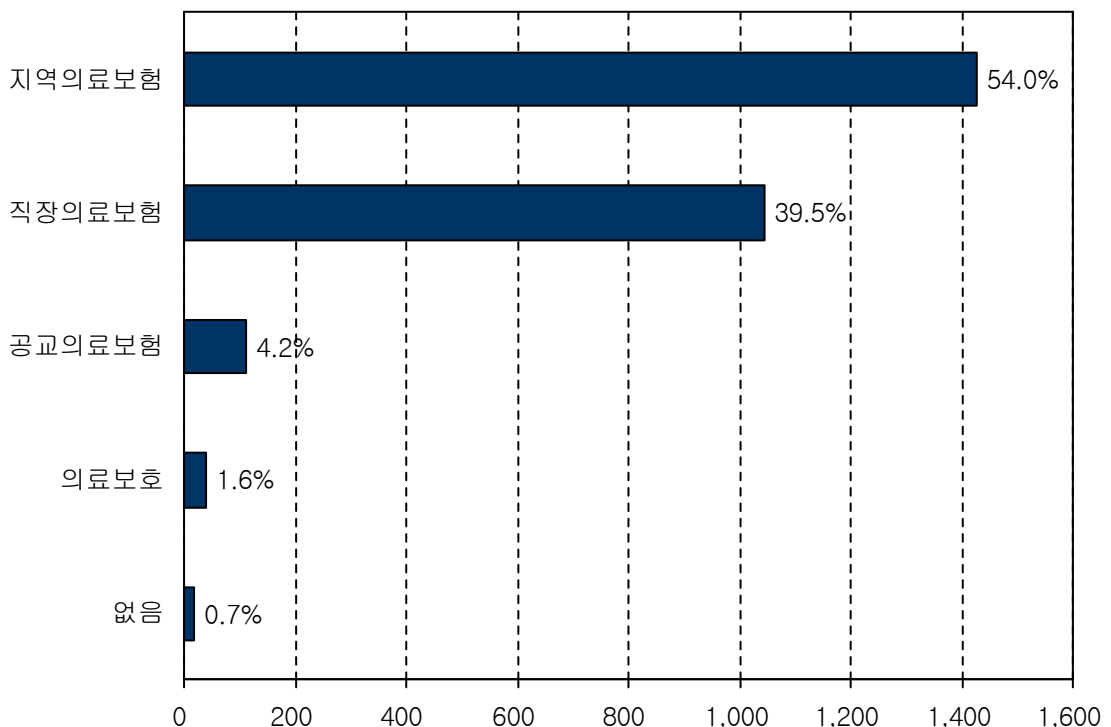
1. 의료서비스 현황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지게 된다.

성동구의 가입현황을 보면, 총 인구 중 99.3%인 333,812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중 지역의료보험이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장의료보험자도 39.5%나 되었다. 기타 공교의료보험이 4.2%, 의료보호 대상자가 1.6%이었다.

[그림 21] 성동구 의료보험별 가입자현황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12.

성동구의 의료기관수는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6개소, 한방병원 64개소, 의원 160개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는 과거 1998년도 조사에 비해 변화가 없었으나 의원은 30여개소가 증가했다.

[표 9] 의료기관의 수

의료 기관	의료기관 수(개소)
종합병원	1
일반병원	6
의원	160
한방병원	64
보건기관	2
전 체	233

자료 출처 : 성동구 보건교육사업 평가서. 성동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2004

성동구의 총 병상 수는 1,814병상으로 종합병원 970개, 병원 501개, 의원 313개, 한방병원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병상 수는 1998년도 조사에 비해 289개 감소하였다. 성동구의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추정했을 때, 서울시의 인구10만 명당 363개보다 많은 527개 이었다.

[표 10] 보건의료기관별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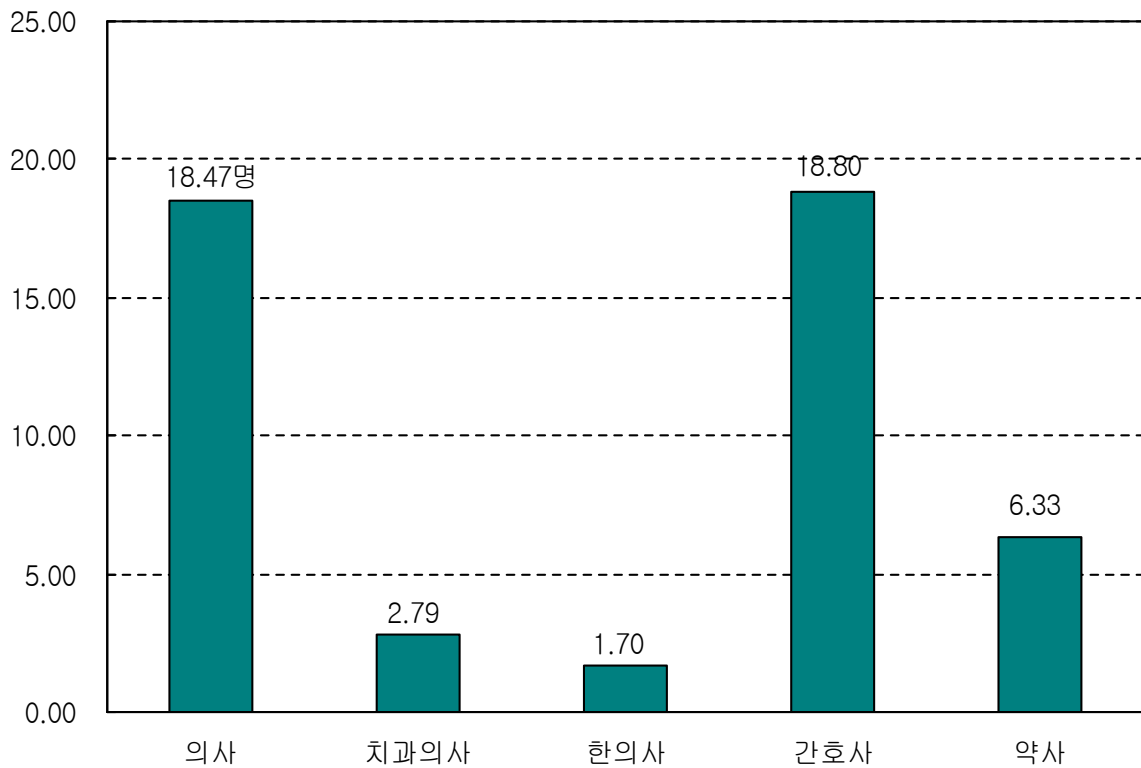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한방병원	전 체
970	501	313	30	1,814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2. 의료서비스 인력현황

성동구의 의료인수는 의사628명, 치과의사 85명, 한의사58명,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641명 등이며 약사는 216명이다. 인구 만 명당 의료 인력의 수를 보면, 간호사 18.80명, 의사(한의사 포함) 18.47명, 약사가 6.33명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의료인력 1인당 주민수를 본다면, 간호사 533명, 약사 1,580, 치과의사 3,593명이며,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886명이다.

[그림 22] 인구 만 명당 의료 인력의 수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3. 사회복지 기관 현황

성동구 전체 인구 중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취약 인구는 총 17,4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이었다. 즉, 독거노인,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대상자, 노인부부세대 등이 각각 전체 인구의 0.8%, 2.0%, 1.6%, 0.8% 이었으며 그 외에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2세대, 가정위탁아동이 34명 이었다. 국민전체의 생활수준과는 상관없이 일정비율 존재하는 의료취약인구에 대하여는 그 대상의 특성별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중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11] 의료취약계층 인구수

취약계층	인구 수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
독거노인	2,699	0.8%
장애인 등록자	6,680	2.0%
기초생활대상자	5,458	1.6%
노인부부 세대	2,637	0.8%
소년소녀 가장 세대	2	
합계	17,476	5.1%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의 사회복지기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아동,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복지시설을 모두 포함해 총 214개의 기관이 있었다. 연중 일평균 실제이용자수는 2,40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동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경로복지관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어린이집 3개소 및 경로당 21개소를 신축하거나 보수공사 하여 노인 및 여성, 어린이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표 12] 사회복지기관별 분포

시설구분	개소 수	실제 이용자수(일평균)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101	5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01	800
장애인복지 시설	1	300
기타복지시설	11	1,300
Total	214	2,405

자료 출처 :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성동구. 2003~2006

성동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공립 27개소, 민간기관 86개소, 직장2개소, 가정31개소가 있었다. 즉,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성동구 주민들은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율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 보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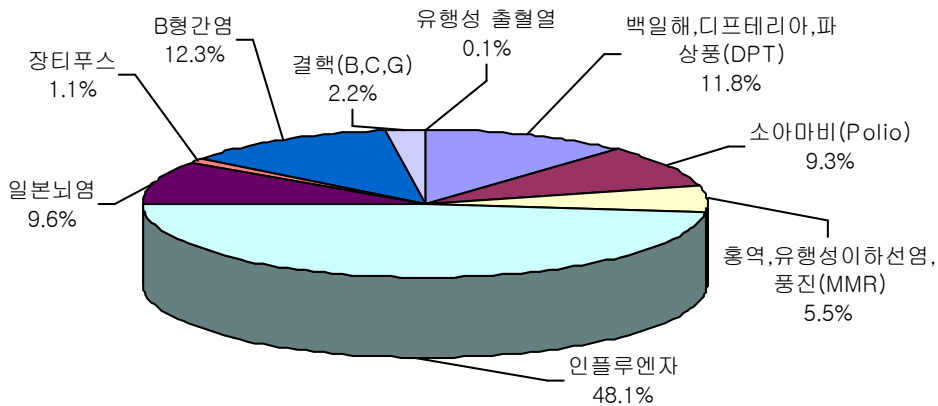
보육시설 종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개인	법인		
시설 수	27	83	3	2	31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4. 예방접종

성동구 예방접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가 48.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B형간염 12.3%, 백일해·디프테리아·파상풍(DPT) 11.8%, 일본뇌염 9.6%, 소아마비(Polio) 9.3% 순이었다. 기타로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MMR), 결핵(B,C,G),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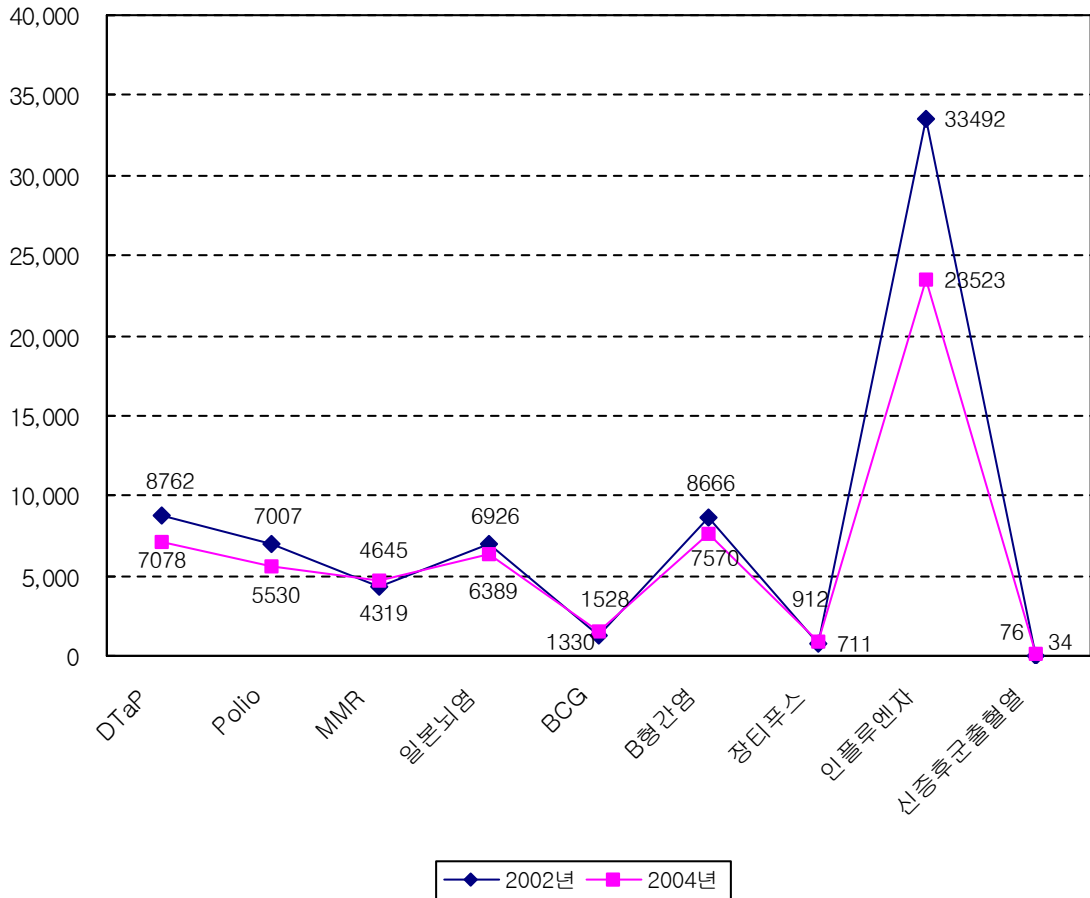
[그림 23] 예방접종 현황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2004년 예방접종을 조사결과, 2002년에 비해 MMR, BCG,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을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률이 상승했다. 특히 인플루엔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다. 반면, MMR, BCG,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등의 접종률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다.

[그림 24] 연도별 예방접종률 추이



자료 출처 : 성동구 보건소 의학과. 성동구보건소. 2003

5. 보건소 서비스

가구당 월 소득별 보건소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29.72%, 101-200만원과 201-300만원인 가구에서는 각각 28.95%, 27.19%로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건소 이용률이 떨어졌다.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12.21%가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서비스를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득이 높을수록 좀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보건소 이용 현황

가구당 월 소득	이용가구(%)	비이용가구(%)
100만원 이하	29.72	62.79
101-200 만원	28.95	71.05
201-300 만원	27.19	72.81
300만원 이상	12.21	87.79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0.72%를 차지했고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이유가 10.21%, 의료서비스의 신뢰 5.43%, 좋은 시설과 친절한 직원은 각각 1.68%와 1.3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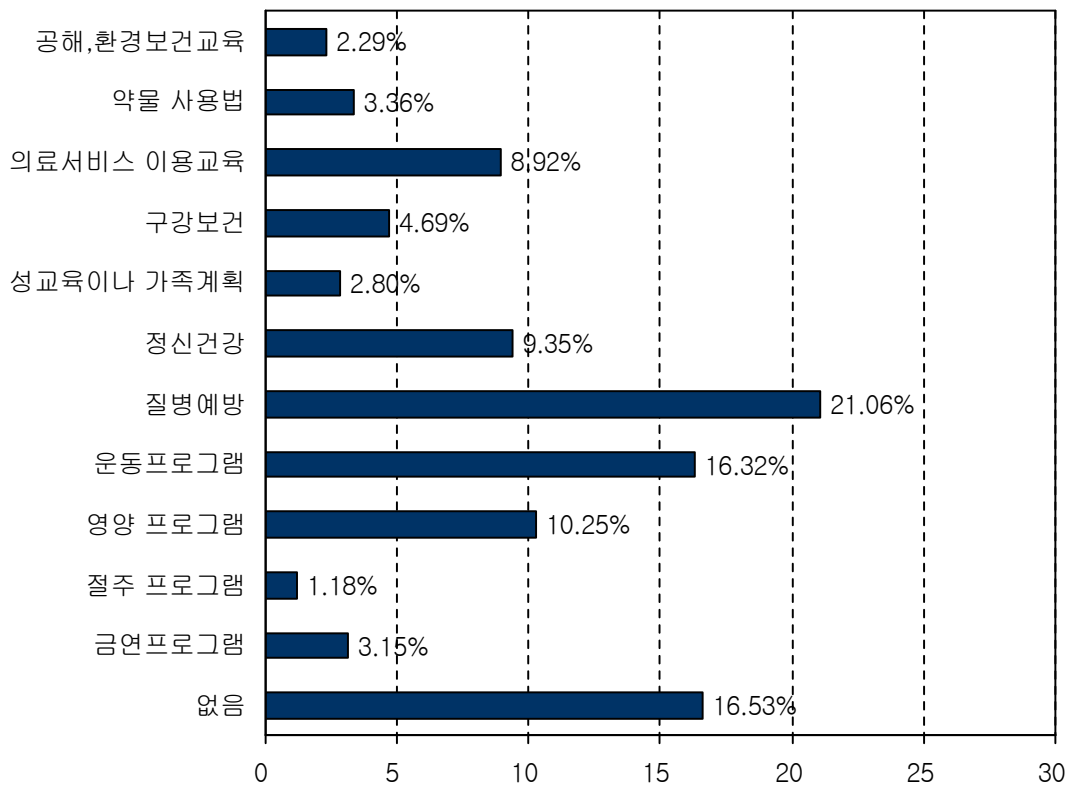
[표 15]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

이유	비율(%)
가까운 거리 위치	10.21
저렴한 비용	70.72
의료서비스의 신뢰	5.43
좋은 시설	1.68
친절한 직원	1.38
기타	10.58
Total	100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시민들이 보건소에 요구하는 프로그램 종류를 조사한 결과,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21.06%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운동 프로그램 16.32%, 영양 프로그램 10.25%, 정신건강 프로그램 9.35%, 의료서비스 이용교육 8.92%의 요구도를 보였다. 기타 요구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면, 구강보건, 약물사용법, 금연프로그램, 성교육 등의 순으로 있었다.

[그림 25] 보건소에 요구하는 프로그램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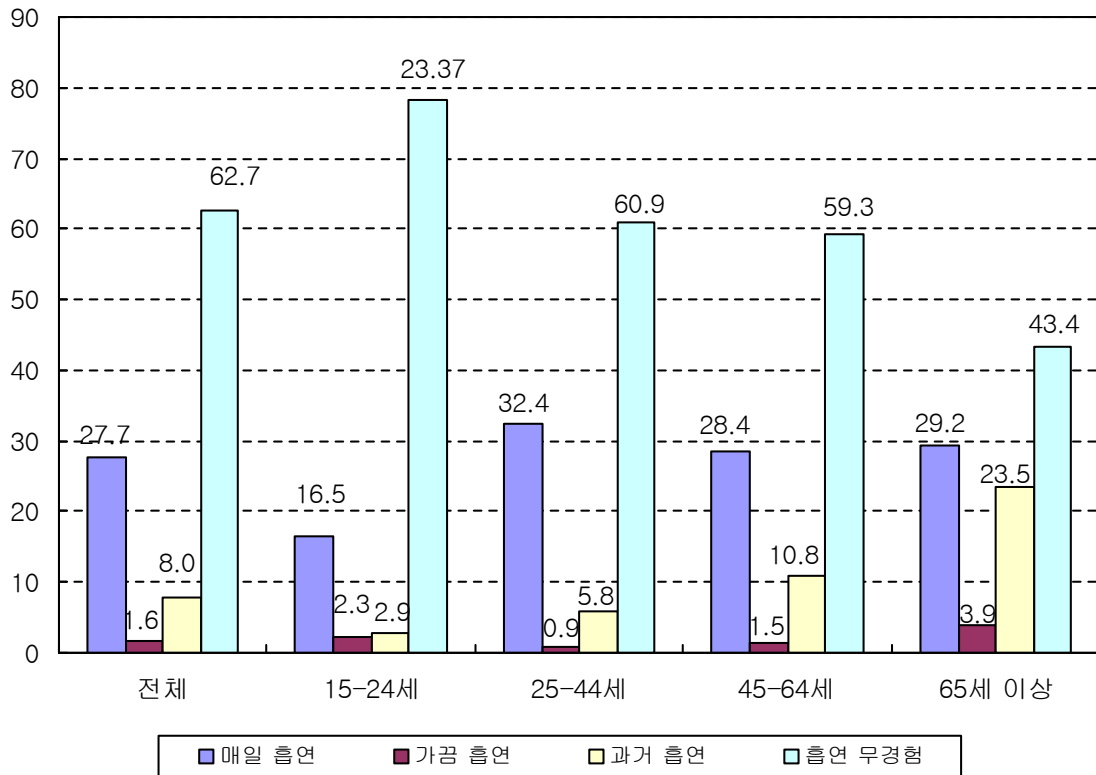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IV. 생활양식지표

1. 흡연

흡연은 우리나라에서 질병과 사망의 단독원인 중 가장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동구 인구 중 15-24세의 18.8%, 25-44세의 33.3%, 45-64세의 29.9%, 65세 이상의 33.1%가 현재흡연자이었다. 과거흡연자의 비율은 23.5%로 65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흡연 무경험자의 비율은 15-24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동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관련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위한 활발한 금연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그림 26]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자료 출처 : 성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동구 보건소. 2003~2006

15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대부분 (56.48%)은 하루 한 갑 미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64세에서 하루 흡연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6] 성동구 15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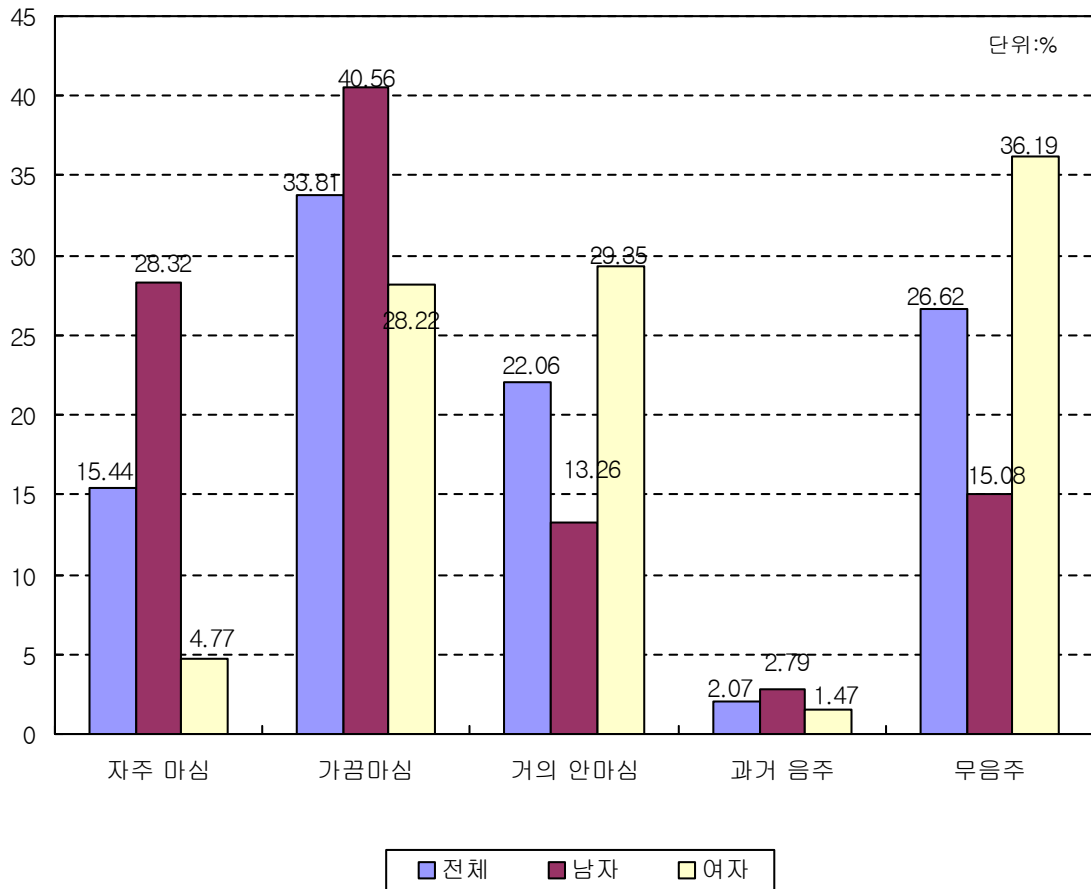
	10개피 이하	11-20개피	한갑(20개피) 이상
15-24세	50.11	57.90	-
25-44세	26.59	56.42	17.00
45-64세	30.26	60.96	8.78
65세 이상	48.36	51.64	-
전 체	32.38	56.48	11.03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6

2. 음주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69.8%로 1998년 68.4%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의 음주율이 1998년 82.98%에서 86.0%로 증가되었다. 성동구의 전체 음주율은 73.08%로 국가전체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높은 음주율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음주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성동구에서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절주 프로그램과 절주 홍보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림 27] 15세 이상 인구의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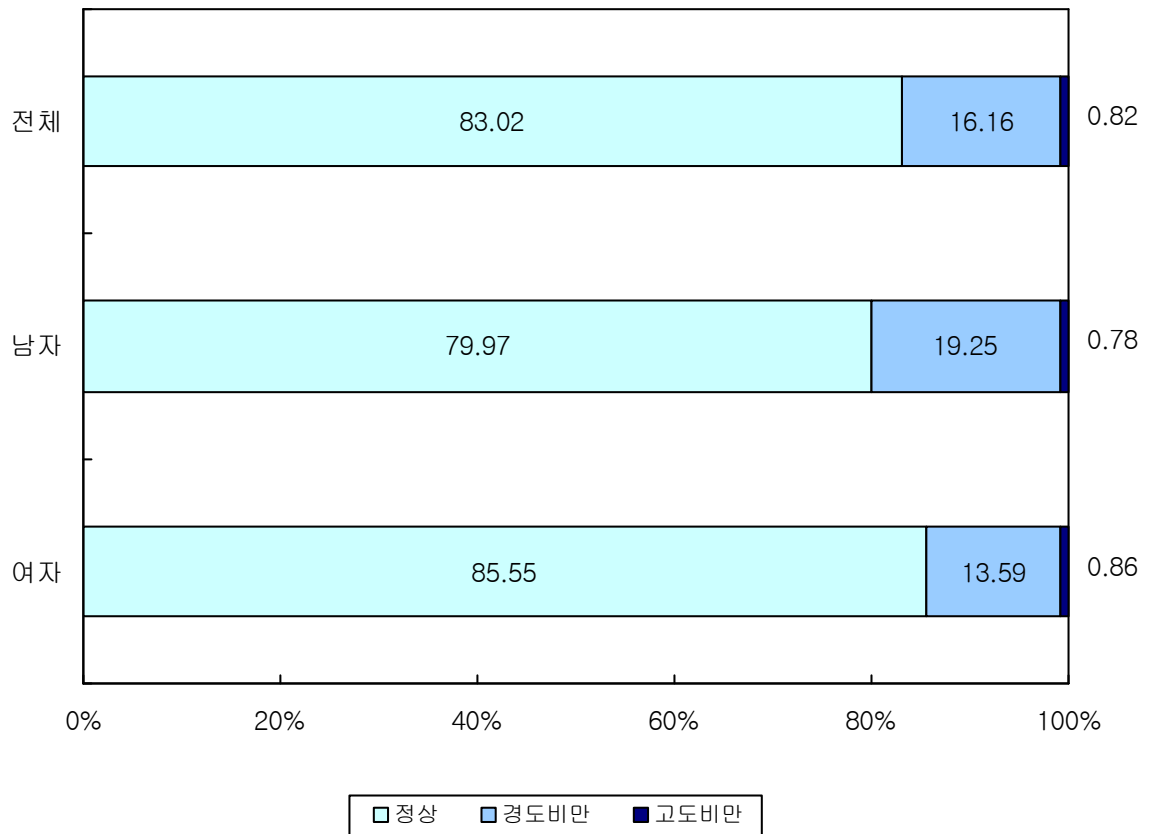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성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동구 보건소, 2003~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2001

3. 육체적 활동

비만을 판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가 BMI(체질량지수)이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지방량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체중과 신장치 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성동구 비만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BMI<25)의 경우, 여자의 비율(85.55%)이 남자(79.9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도비만($25 \leq \text{BMI} < 30$)인 경우에는, 남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9.25%로 여자(13.59%)보다 높았고 고도비만(BMI ≥ 30)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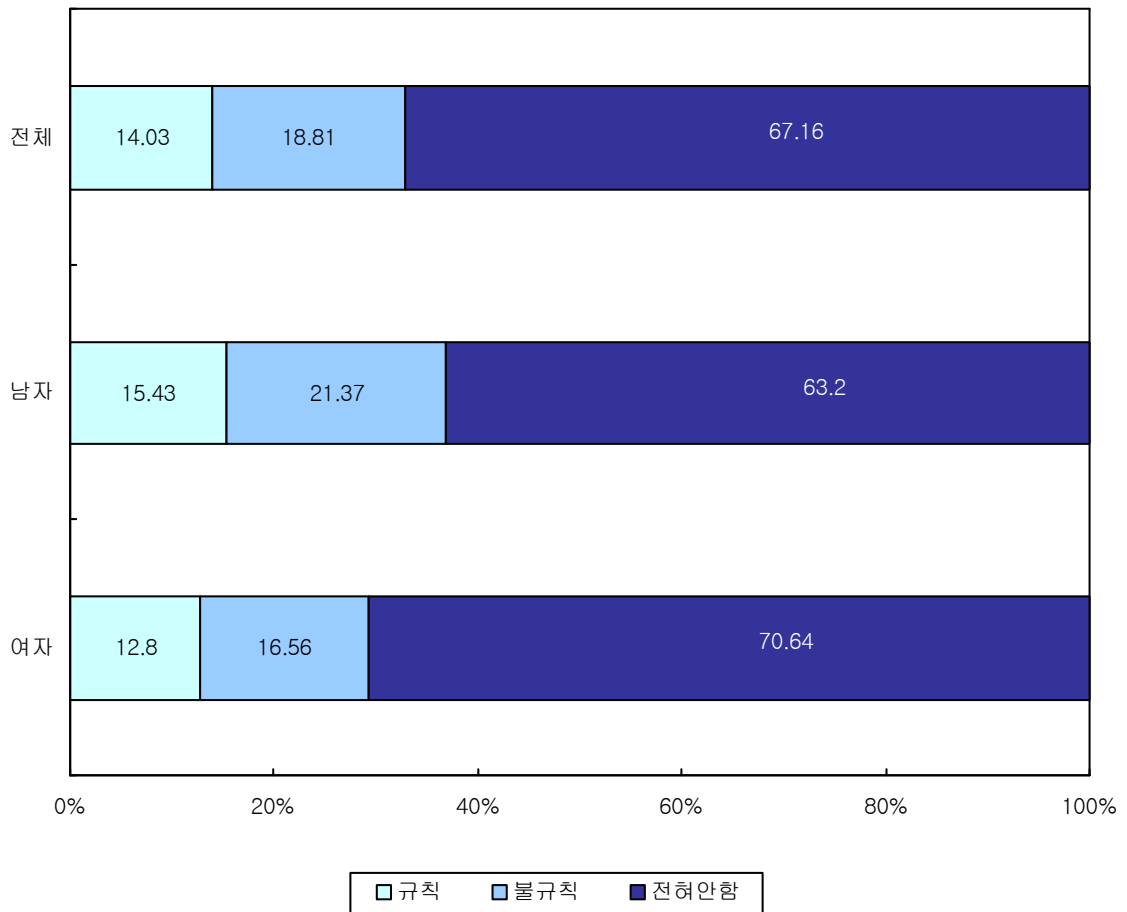
[그림 28] 성동구 비만도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운동이 건강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운동 빈도와 운동시간이 모두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운동의 기준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는 1회 20분 이상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경우를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로 하며, 주 2회 이하인 경우 불규칙적인 운동실천자로 정한다. 운동 실천율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운동을 전혀 안하는 사람의 비율(67.16%)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여자의 비율(70.64%)이 높았다. 불규칙적인 운동실천자와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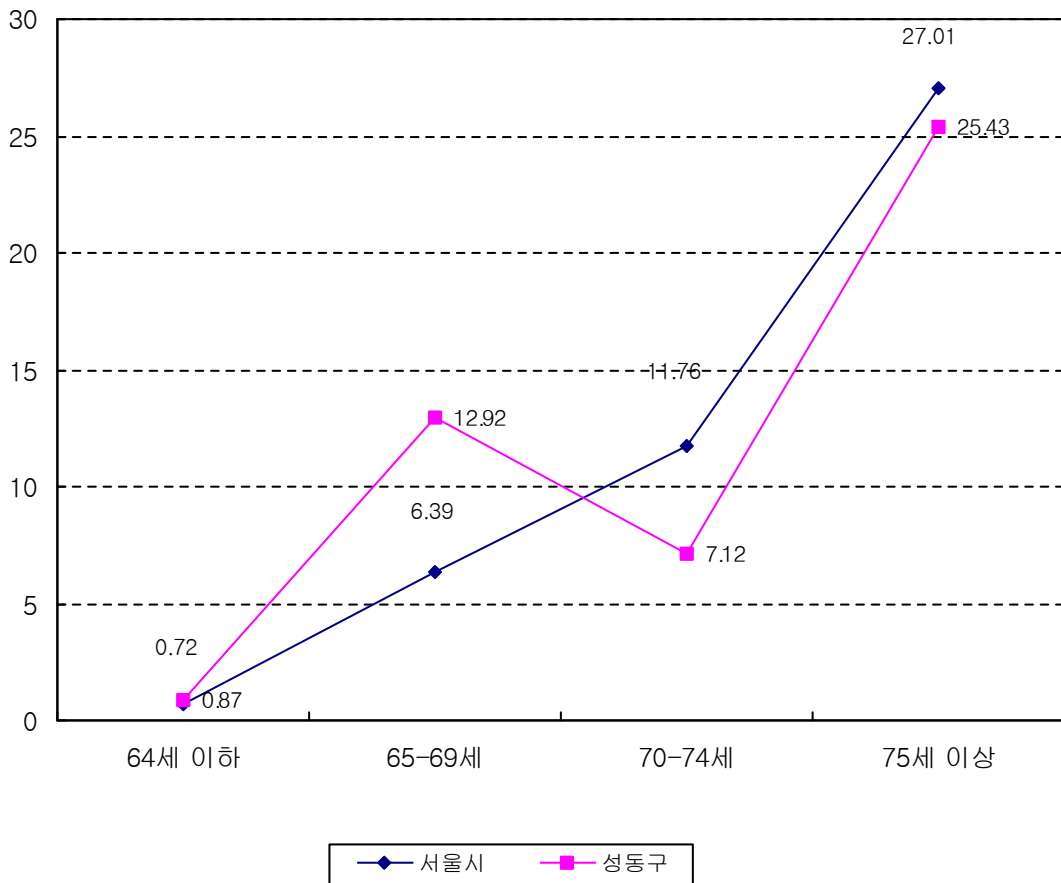
[그림 29] 성동구 운동실천율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개인의 활동제한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활동제한일에는 침상와병일이 포함되나 활동 감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제한조사는 장기 활동 제한에 관한 조사와 2주간 활동 제한에 관한 조사로 나누어진다. 장기 활동 제한자인 경우 평소 제한된 활동보다 더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장기 활동 제한자의 비율을 보면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활동제한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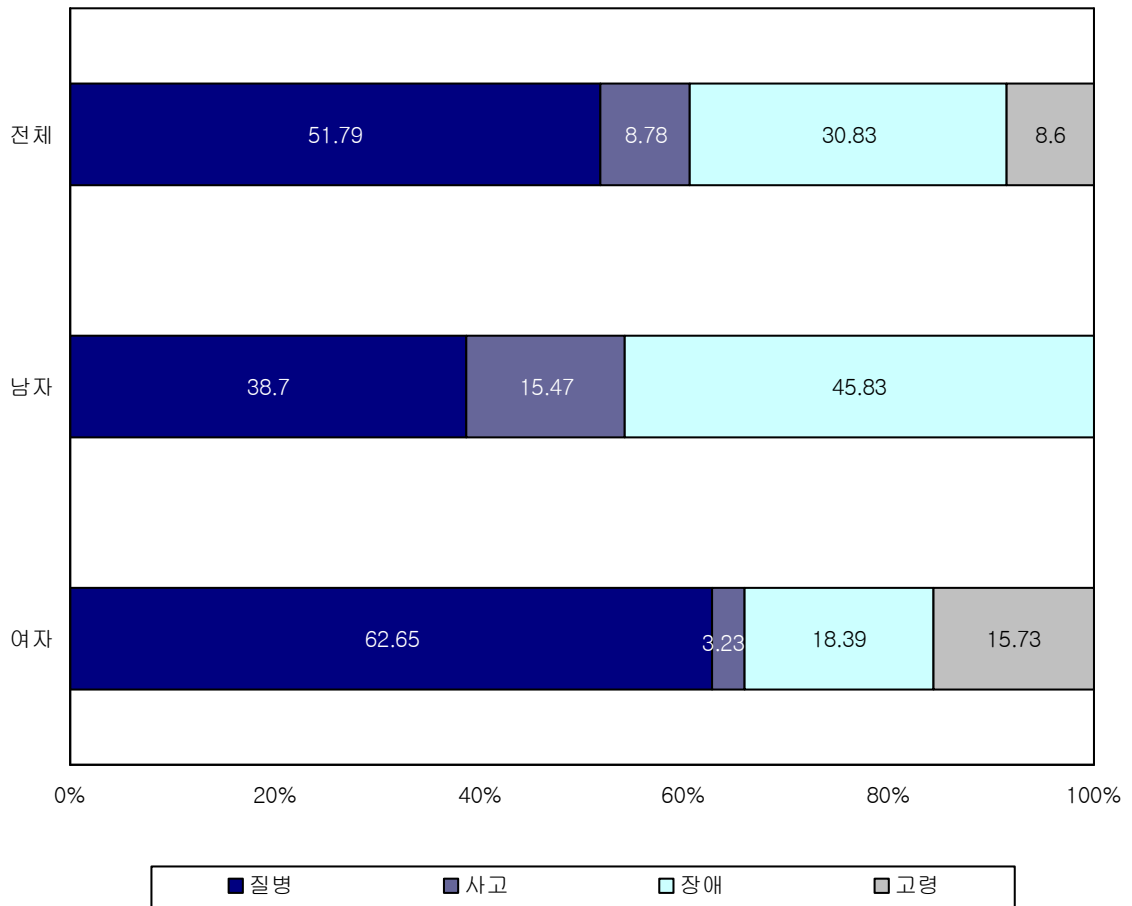
[그림 30] 성동구 장기 활동 제한자 비율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장기 활동 제한자의 주요 원인은 전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한 것이 62,65%로 가장 많았고, 장애가 18.39%, 고령 15.73%, 사고 3.23%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것이 45.83%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질병 51.79%, 사고 15.47% 이었다.

[그림 31] 성동구 장기활동 제한자의 주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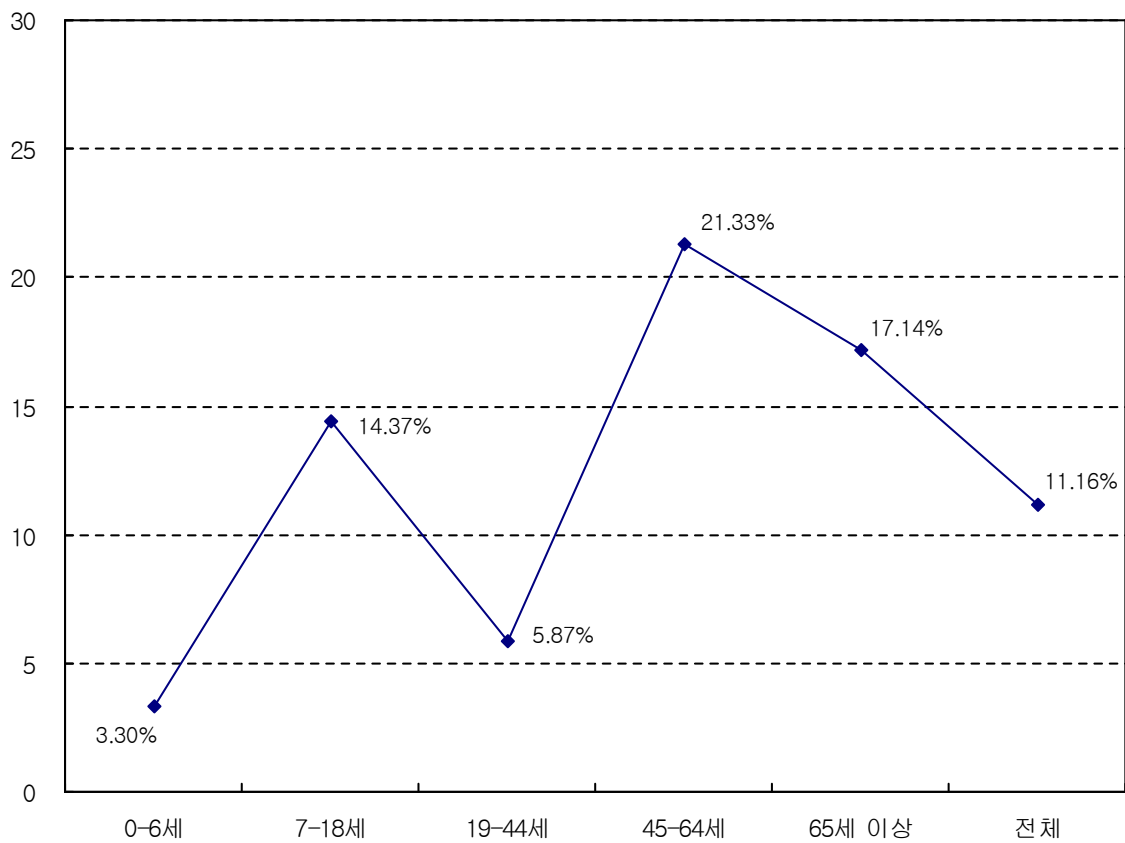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4. 사고 현황

성동구에서 일어나는 전체 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45-64세에서 사고 발생률이 21.3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률은 다시 낮아지고 있었다. 특히, 7-18세의 청소년층의 사고 발생률이 14.3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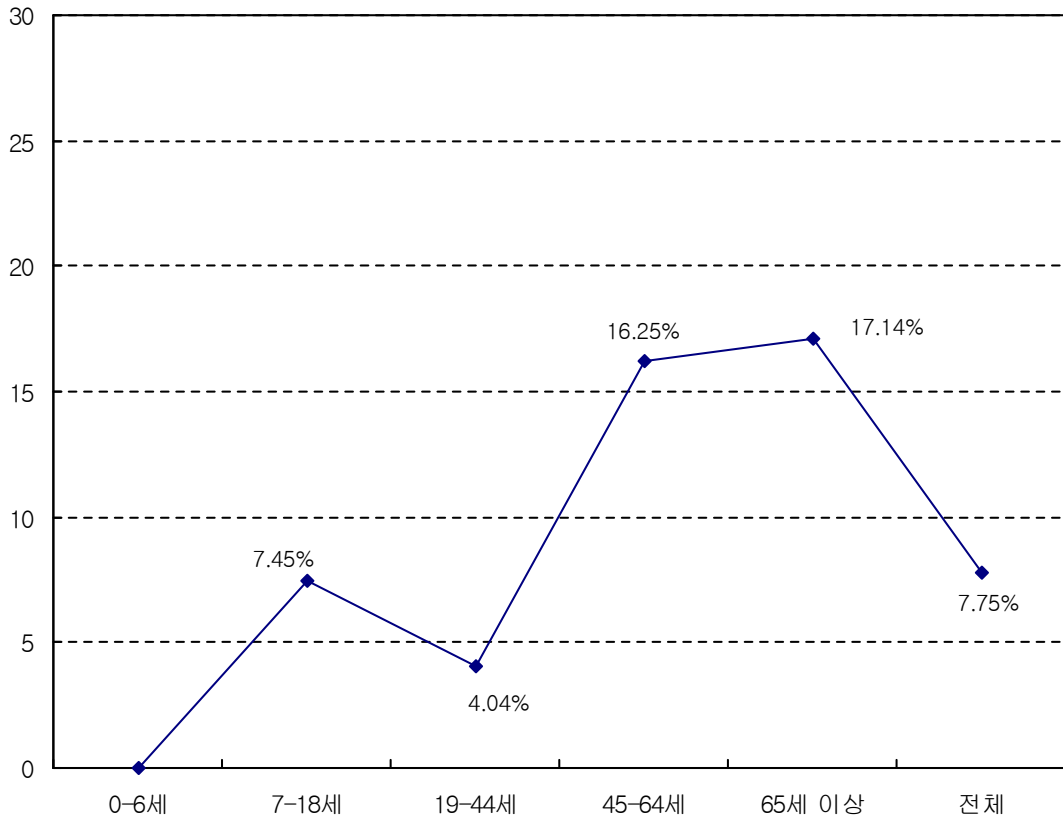
[그림 32] 성동구 전체 사고 발생률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전체 사고 중 교통사고 발생률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에서 17.14%, 45-64세에서 16.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5세 미만 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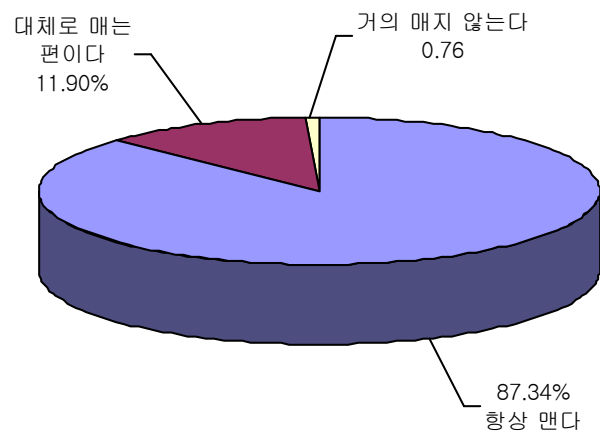
[그림 33] 성동구 교통사고 발생률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성동구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안전벨트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7.34%가 항상 안전벨트를 매며 11.9%도 대체로 매는 편이라고 답해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전벨트를 거의 매지 않는다고 비율은 전체의 0.76%이었다.

[그림 34] 성동구 안전벨트 착용실태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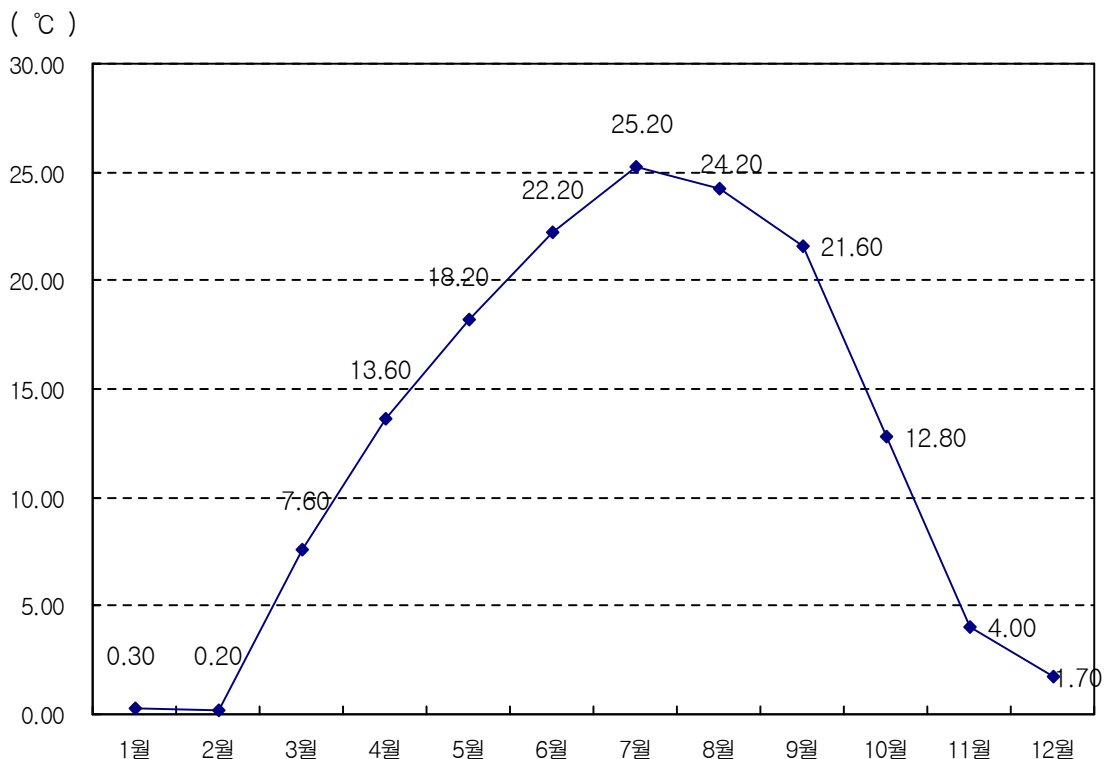
V. 환경 지표

1. 기온과 강수량

성동구의 월별 평균기온과 강수량을 관한 자료에 따르면, 월별 평균기온은 12.9℃이며, 7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추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평균온도는 11.8℃로 성동구에 비해 약간 낮았으며 연중 8월이 가장 덥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이었다.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동해안의 강릉보다 2~3℃정도 낮은 기온분포를 보이며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지배를 받아 열대지방 못지않게 기온이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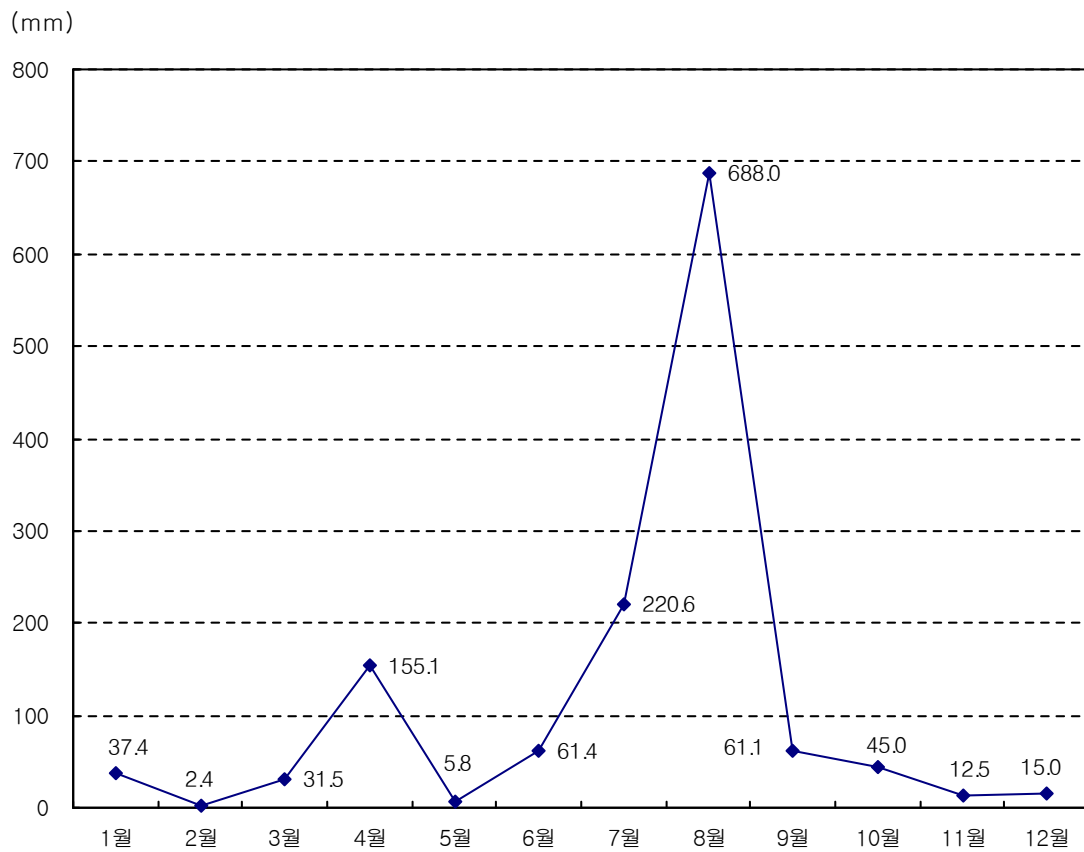
[그림 35] 월별 평균기온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수도 서울의 자치구인 성동구는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배후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열섬과 같은 특이한 도시기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복잡한 지형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00mm이며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다. 장마철은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달정도이다. 겨울철 강수량은 한해 강수량의 10%에도 못 미친다.

[그림 36] 강수량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2. 대기 오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원으로 선택된 물질들의 평균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동구의 대기환경 오염수준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평균 수준보다도 낮아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먼지는 76($\mu\text{g}/\text{m}^3/\text{년}$)으로 나타나 서울시 60 ($\mu\text{g}/\text{m}^3/\text{년}$)이나 환경부의 70($\mu\text{g}/\text{m}^3/\text{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7] 대기환경오염수준 현황

	아황산가스 (ppm/년)	일산화탄소 (ppm/8시간)	이산화질소 (ppm/년)	먼지 ($\mu\text{g}/\text{m}^3/\text{년}$)	오존 (ppm/8시간)
환경부 기준	0.02	9.0	0.05	70	0.06
서울시 기준	0.01	9.0	0.04	60	0.06
성동구	0.005	0.7	0.036	76	0.014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3. 급수 현황

우리나라는 물 관리가 어려운 나라이다. 연간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내리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형이 많이 빗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 국민의 12%가 수도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수도물 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가적으로 네트워크형 광역 급수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로 물 낭비를 막는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성동구의 연간 급수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성동구의 연간 급수량은 1995년 이후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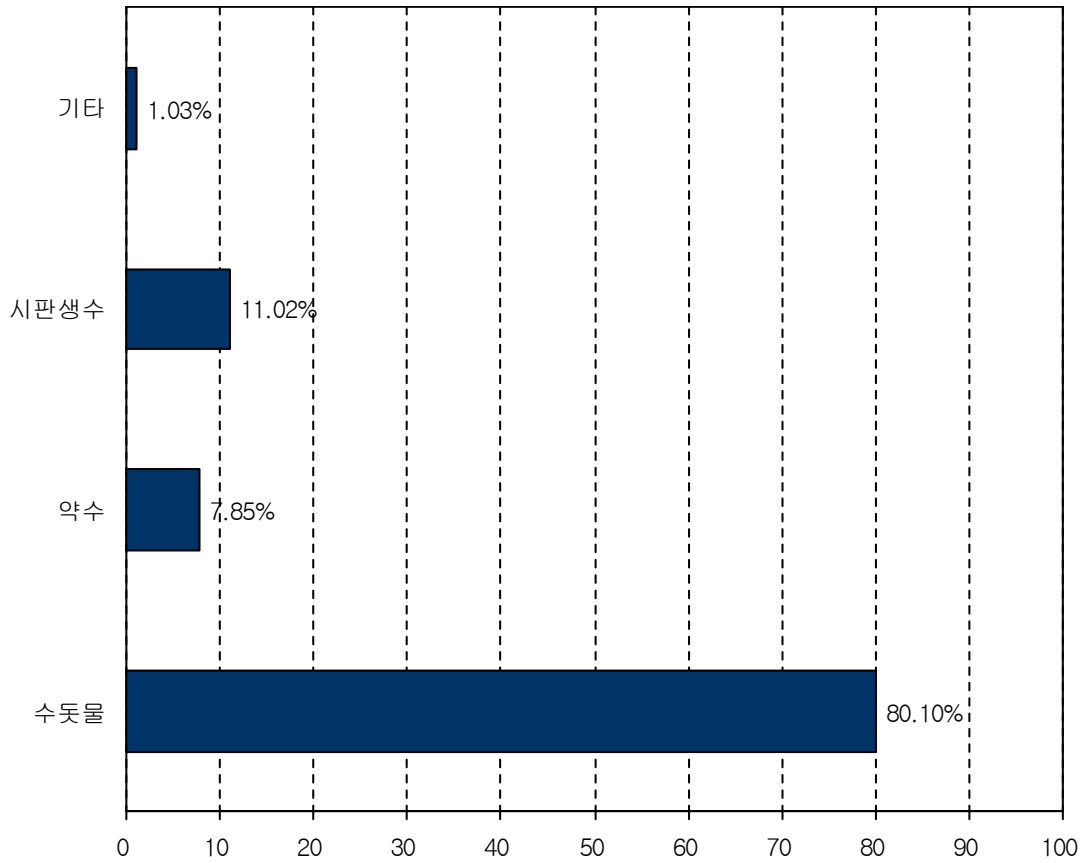
[그림 37] 연간 급수 사용량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민의 음용수 종류별 공급율을 조사해본 결과, 성동구민의 80.01%가 음용수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어 수돗물 의존율이 컸다. 기타 시판생수가 11.02%, 약수 7.85% 등이었다.

[그림 38] 음용수 종류별 공급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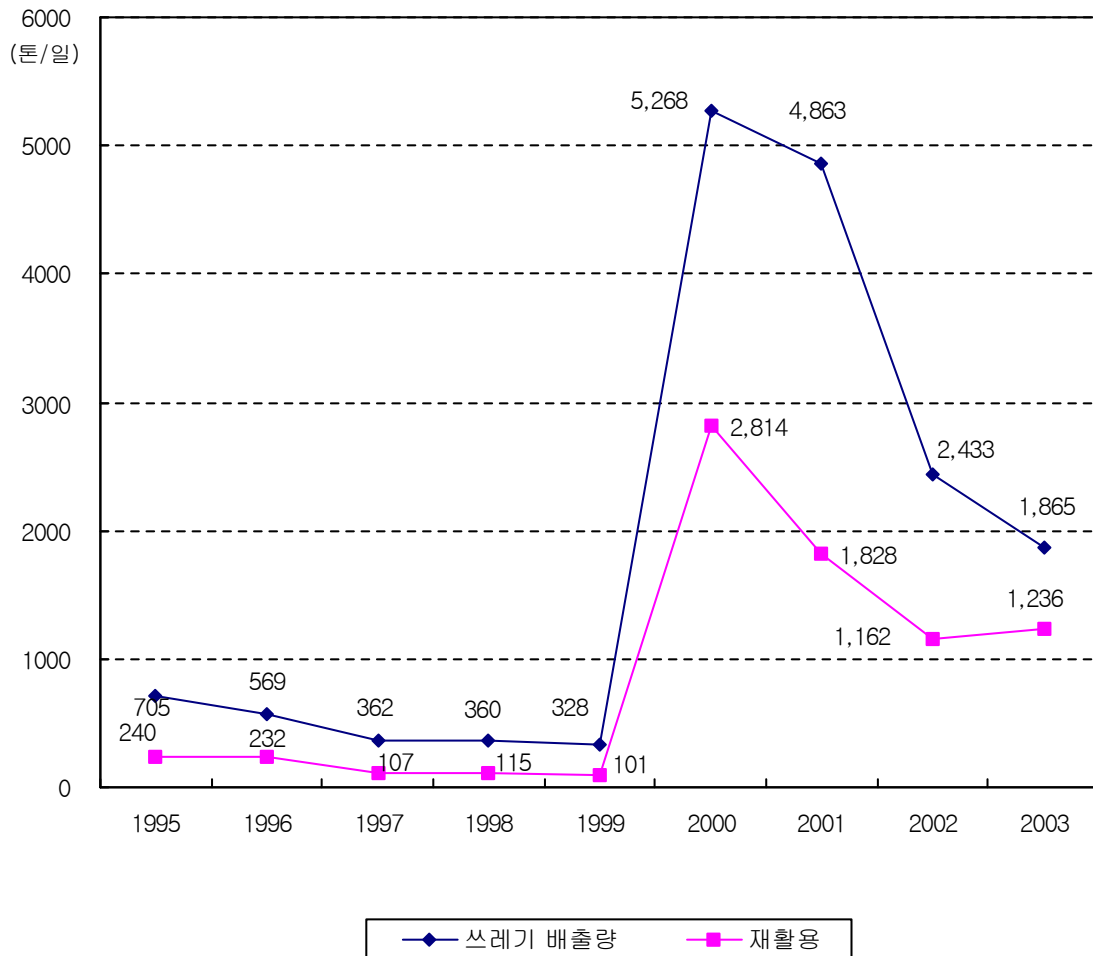
* 기타 : 우물물 · 펌프 · 간이 상수도 등 포함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4. 쓰레기 처리

일일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의 조사결과, 성동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199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3년 1,865m³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재활용량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정착화 되면서 2003년도의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반대로 재활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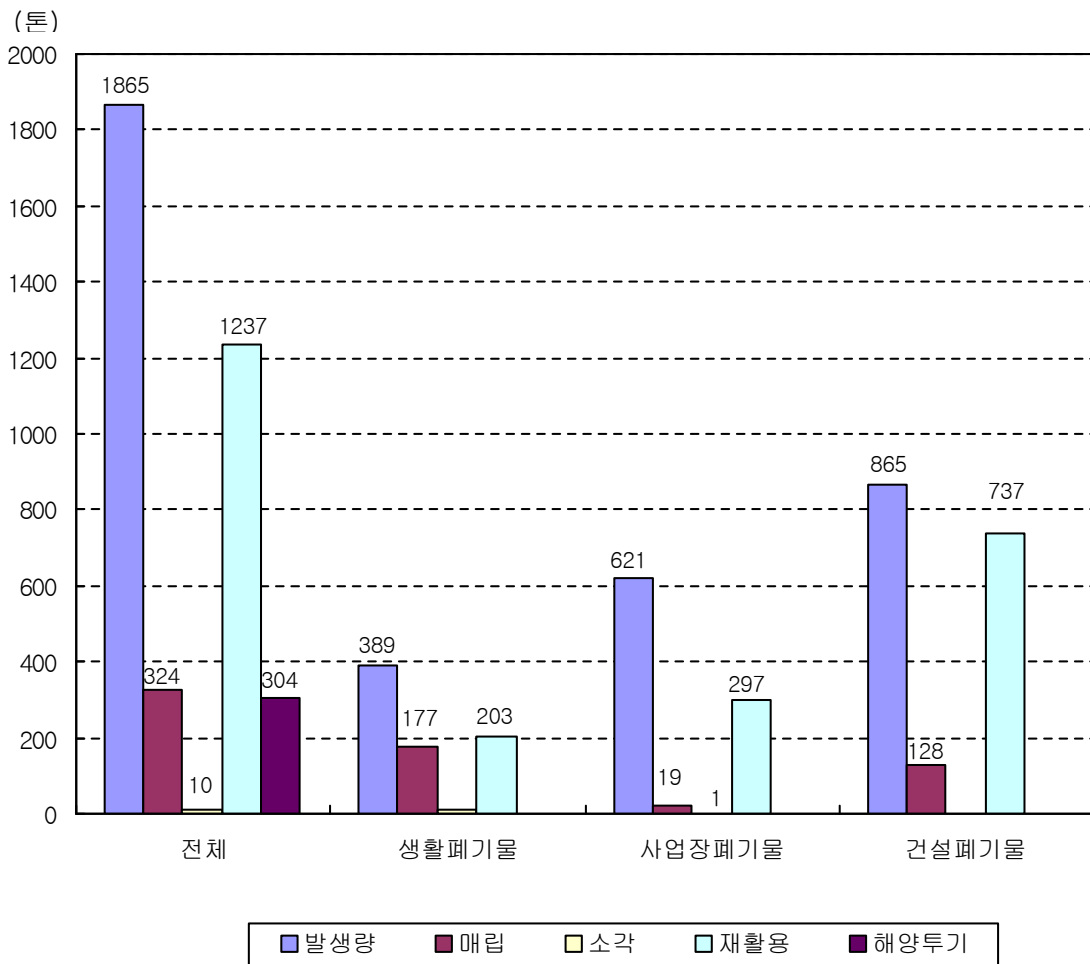
[그림 39] 일일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연간 쓰레기 수거 처리를 조사한 결과, 성동구의 쓰레기 수거율은 100%이다. 전체 쓰레기 수거 처리율을 살펴보면, 재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이 해양투기, 매립이었으며 소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의 수거처리에서는 해양투기가 가장 많았으나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에서는 매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0] 연간 쓰레기 수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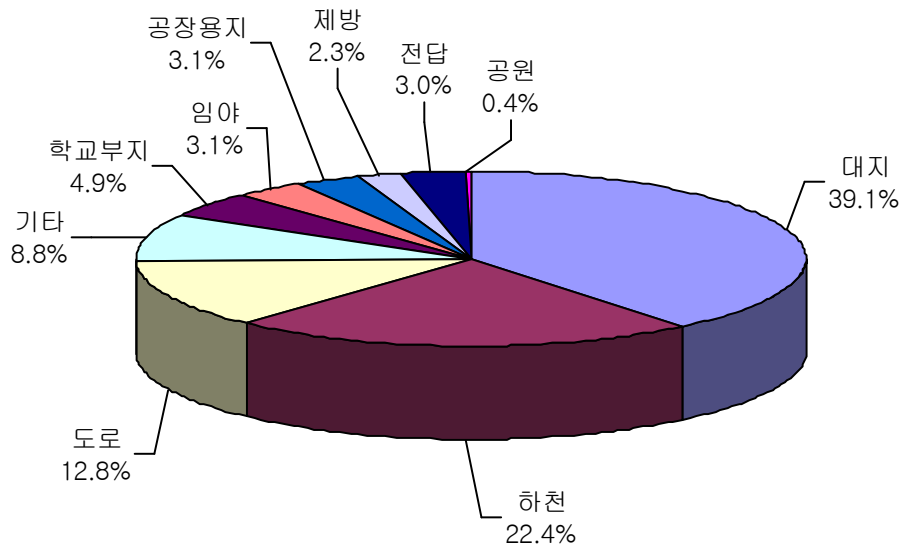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5. 녹지 공간

우리 구는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무지개 피는 성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올해 7대 중점 시책 중 하나가 미래의 수변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이 끝남과 함께 수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 숲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구청의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성동구는 점점 푸르른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성동구의 토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성동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6.84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8%이다. 그 중 대지가 6.59km²로 전체의 39.1%, 하천이 3.78km²로 전체의 22.4%, 도로가 2.16km²로 전체의 12.8%이었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전체의 61.8%, 녹지지역이 23.9%, 준 공업 지역이 12.9%, 상업지역이 1.4%를 차지했다.

[그림 41] 토지 이용률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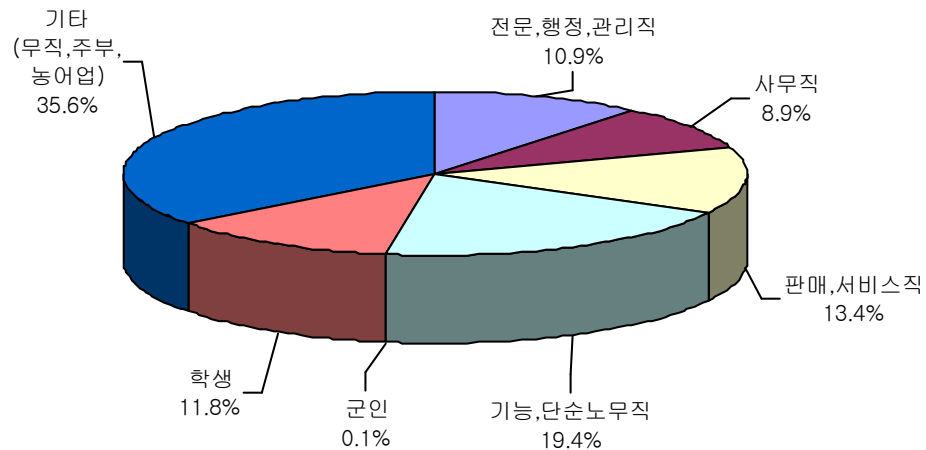
VI. 사회경제지표

1. 경제활동

성동구는 서울시 권역 구분상 부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 상업, 주거 등 복합 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다. 그 중 특히 동부지역에는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북부는 자동차 유통 중심지역으로 구분되어있다.

성동구 주민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무직이나 주부, 농어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의 비율이 35.6%로 상대적으로 컸으며 기능,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19.4%, 판매, 서비스직 13.4%, 학생이 11.8%, 전문, 행정, 관리직이 10.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사무직의 비율이 8.9%였으며 군인의 비율은 0.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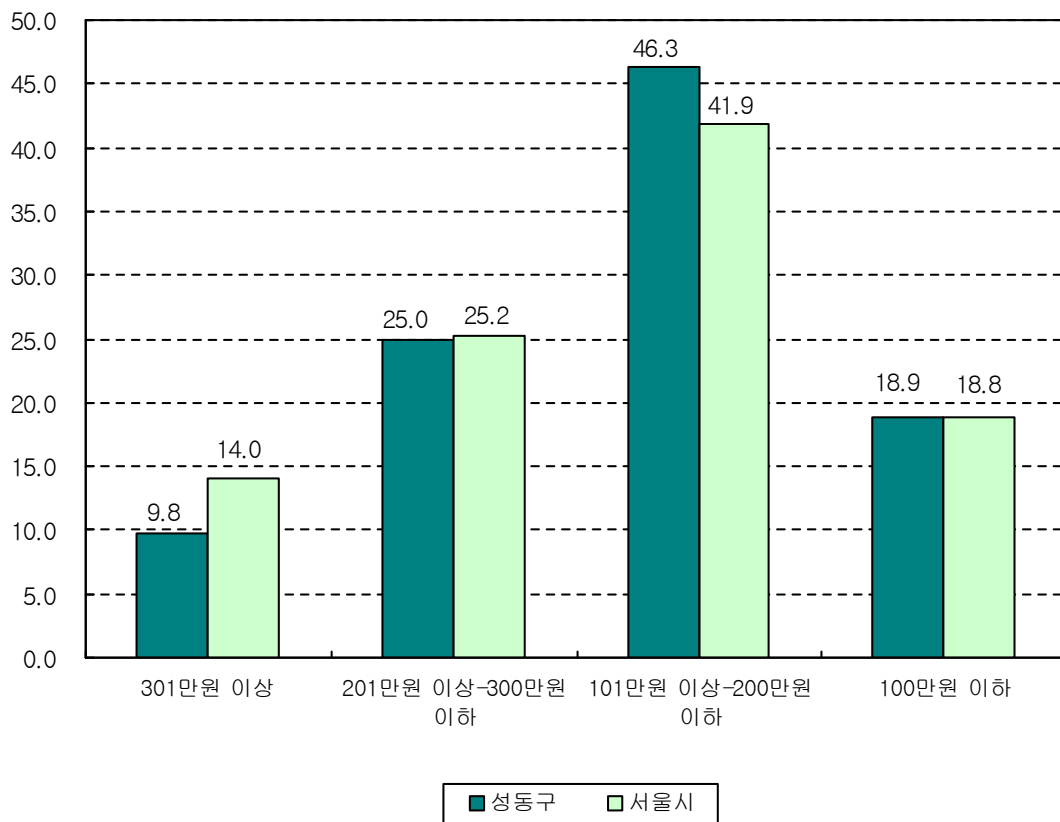
[그림 42] 경제활동(직업) 현황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가구별 월 소득 조사결과 절반가까이 되는 46.3%의 가구가 월 소득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이하의 월소득을 가진 가구가 25.0%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전체인구의 9.8%이었다. 또한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의 가구는 18.9% 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301만원 이상의 비율이 14%로 성동구보다 높았고 101만원이상 200만원 이하가 41.9%로 낮았다. 다른 두 소득 집단의 비율은 비슷했다.

[그림 43] 성동구 가구별 월 소득 현황



자료 출처 :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6

일반적으로 빈곤층인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와 준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는 최저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의료와 최저 생계비를 포함한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22만4천원, 4인가구 기준)인데 이들은 준(準)빈곤층에 속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달리 아직 아무런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126,592가구 중 3,462가구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성동구 전체 인구 343,929명 중 5,326명이 여기에 속한다.

[표 18] 저소득층 현황

저소득층		가구 수/원수
전 체	가구	3,606
	가구원	6,498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3,462
	가구원	6,192
차상위계층	가구	144
	가구원	306

자료 출처 : 성동구 지역현황. 성동구 보건소. 2005 1.1

성동구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는 238,79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가 4,99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2.1%로 서울시보다 높은 수치이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수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가 70.2%, 여자가 68.6%로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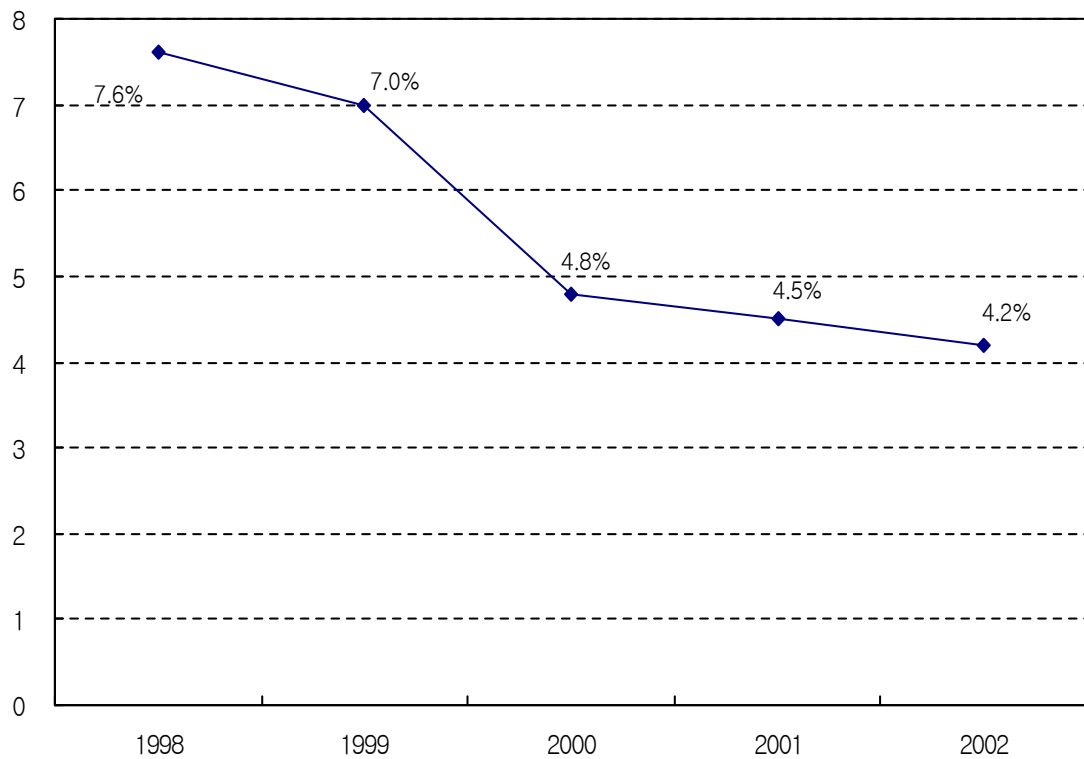
[표 19] 경제활동 가능인구

성별	인구 수(%)
남자	121,623(70.2)
여자	117,174(68.6)
Total	238,797(69.4)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 중 성동구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실업률은 1998년 국가 부도의 위기였던 IMF의 여파로 7.6%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2002년 실업률은 4.2%이었다.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의 실업률과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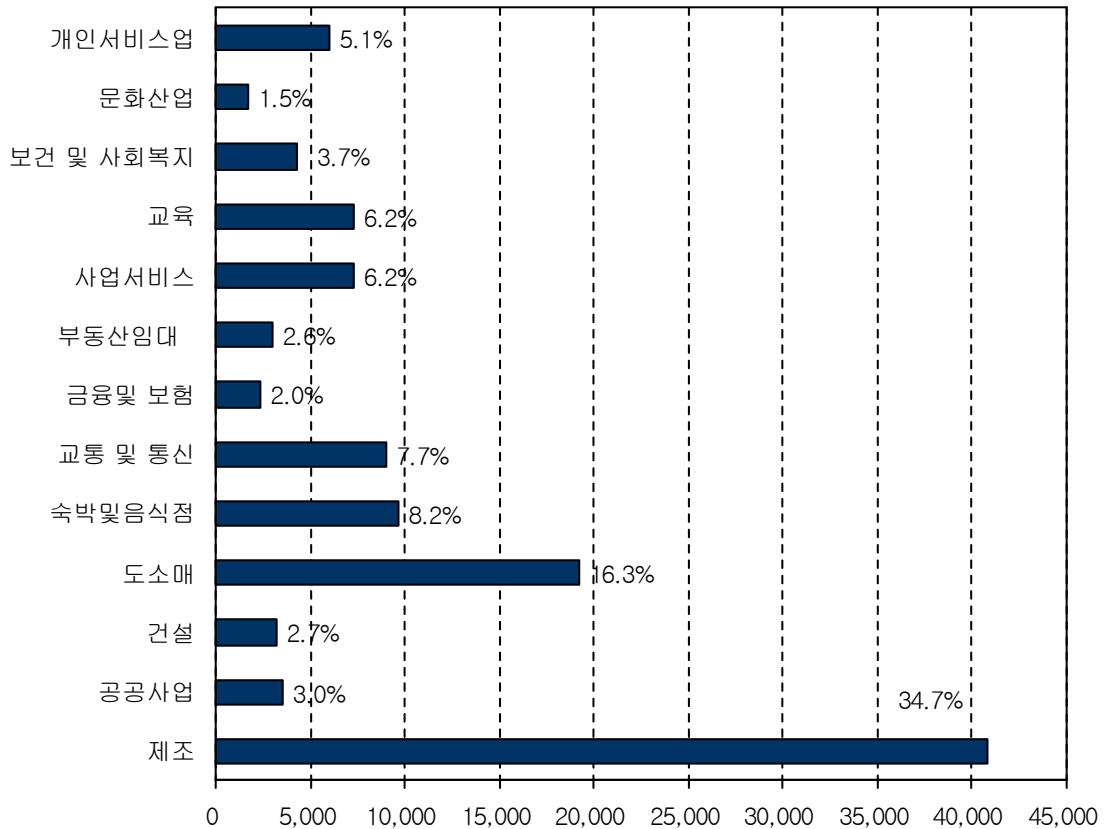
[그림 44] 실업률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내 산업체 종사자의 34.7%는 중소기업인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소매업 16.3%, 숙박 및 음식업 8.2%, 교통 및 통신 7.7에 각각 종사하고 있었다. 기타 교육과 사업서비스에도 6.2%씩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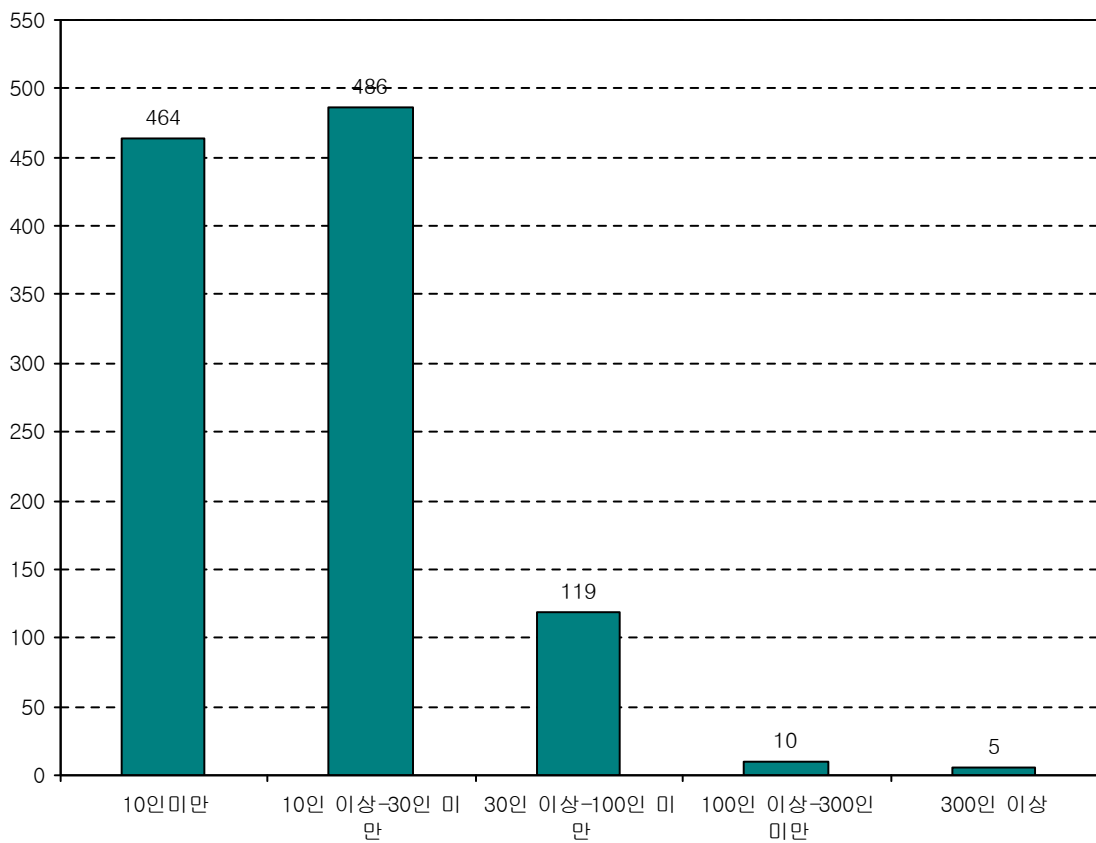
[그림 45] 산업체별 종사자 수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에는 종사자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486개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성동구 동부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464개 있었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산업체가 119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산업체가 10개였으며 300이상 되는 산업체도 5개 있었다.

[그림 46] 종사자 규모별 산업체 수



자료 출처 : 성동구 지역경제과 등록업체 자료. 성동구. 2003

성동구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총 22,153명이며, 그중 외국인 노동자 4,561명으로 전체 노동자수의 1.3%이었으나, 미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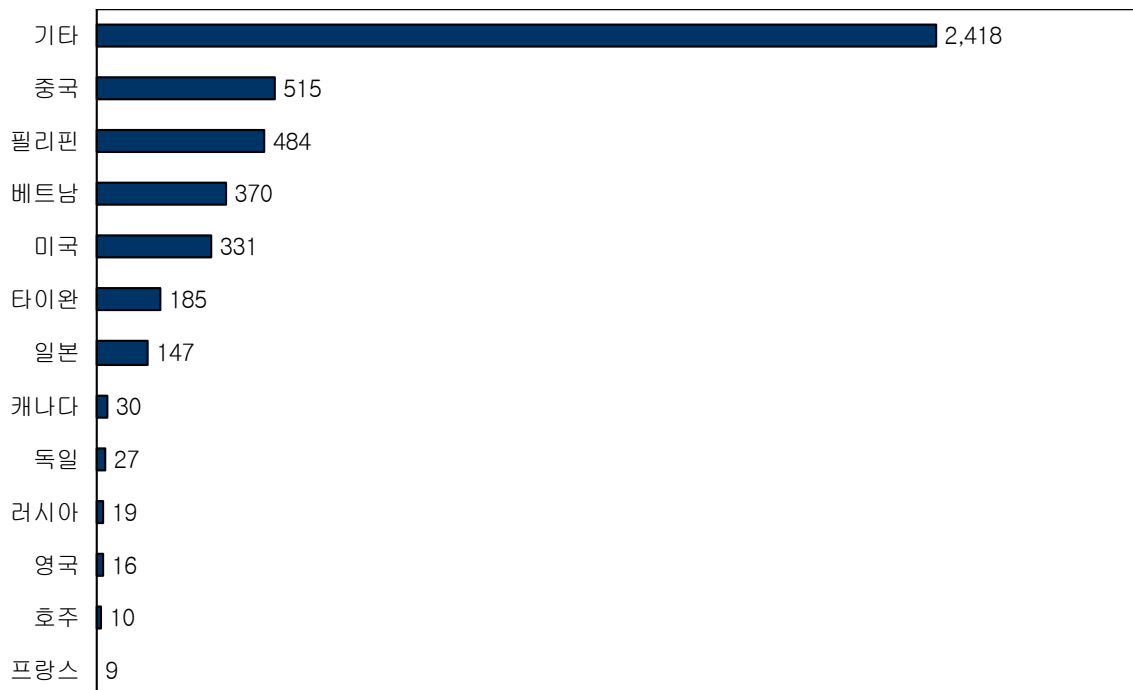
[표 20] 성동구 외국인 노동자 비율

전체 인구(명)	외국인 노동자		
	전 체	여 자	남 자
343,929	4,561(1.3%)	2,196(1.3%)	2,365(1.4%)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노동자수가 515명으로 단일국가 외국인 노동자로는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484명, 370명 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오는 노동자도 총 331명 있었다.

[그림 47]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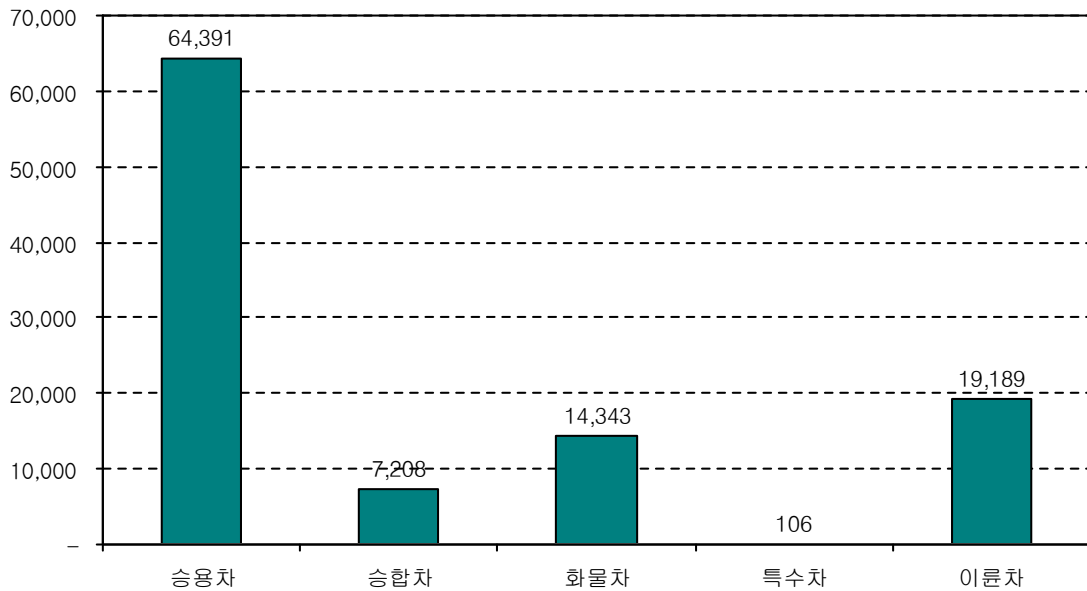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2. 교통 및 정보통신

성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개인용, 상업용 및 공무원 차량 등 모두 포함)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의 수가 64,391대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와 이륜차도 각각 14,343대, 19,189대였으며 특수차량도 106대 이었다.

[그림 48] 등록된 자동차 수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의 전화 및 컴퓨터 보급률을 보면, 주택용 가입자 수만 해도 총 237,428대로 성동구 가구 수의 거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표 21] 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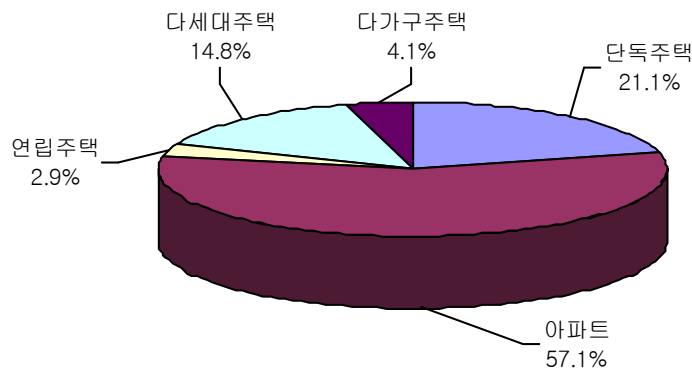
지점별	시설수 (회선)	가입자 수(명)			공중전화 (대)	
		합계	업무용	주택용		사업용
광진지사	149,394	113,718	21,559	90,268	1,891	3,018
성수지점	144,323	102,894	26,075	75,903	916	-
행당지점	123,923	86,246	14,584	71,257	405	-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3. 주택

성동구의 전체 주택 보급률은 75.7%였으나 주택재개발과 주택자금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향후 2~3년간 주택 보급률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전체 주택 보급의 57.1%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이 21.1%, 다세대주택이 14.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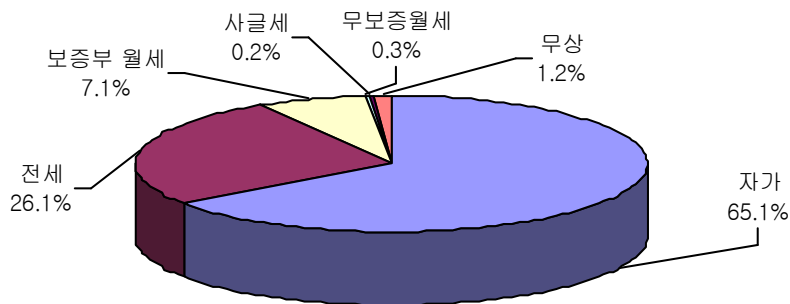
[그림 49] 주택종류별 보급률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 주택의 주요 점유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성동구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절반이 훨씬 넘는 65.1%의 가구가 자가의 형태로 살고 있었으며 전세인 가구는 26.1%, 월세형태(보증부 월세, 사글세, 무보증월세)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상으로 살고 있는 가구는 전체 주택 점유형태의 1.2%를 차지했다.

[그림 50] 주택의 점유형태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4. 교육현황

성동구내 학교는 총 46개소로 대학원 13개교, 대학교 2개교(전문대학 1개교 포함),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다. 현재 성동구의 고등학교는 실업계 3개교, 일반계 3개교가 있으나 2,600여명의 일반계 고교 진학 희망 인원 중 약 1,200명 정도만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 1,4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타구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여 향후 2007년까지 5개교 설립을 목표로 현재 충분한 학교 부지를 확보 중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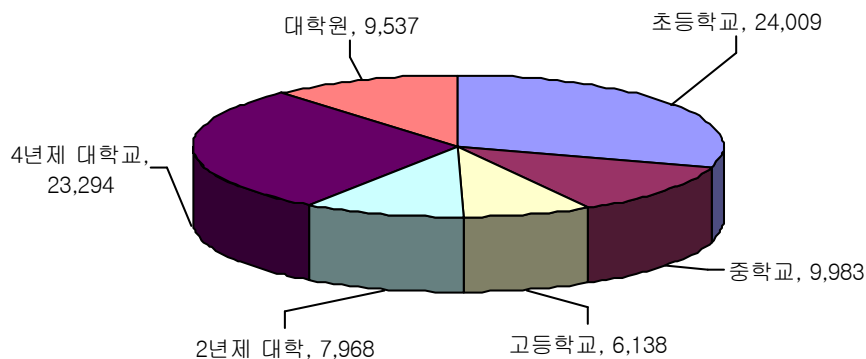
[표 22] 교육기관 현황

	전 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일반계	실업계		
현시설	48	53	16	10	3	3	2	13
설립중	9		4		5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교육기관별 학생 수를 보면, 총 학생수는 80,929명이었다. 그 중 초등학교와 대학교의 인구수가 각각 24,009명과 23,294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설립예정인 5개의 고등학교가 2007년까지 학교부지가 확보되고 이후 완공되면 향후 고등학생 수의 상당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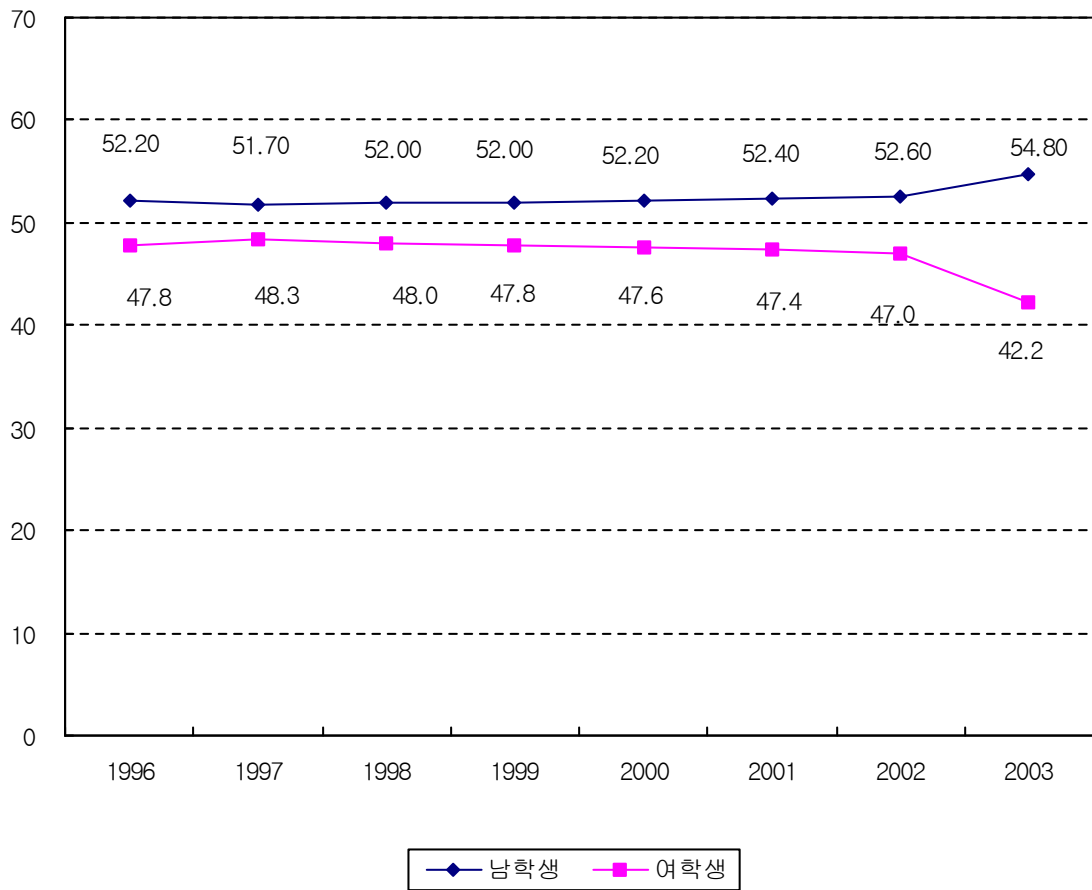
[그림 51] 학생 수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성동구의 남녀 학생비율은 1996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가 2003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54,80%로 증가했고, 여학생 비율은 전체 42.2%로 감소했다.

[그림 52] 남녀 학생 비율



자료 출처 : 성동 통계 연보. 성동구. 2003

[Form F]